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No. 1093 1983년 3월 29일 (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Tuesday, March 29, 1983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한인사회의 힘과 단결력을 아낌없이 드러낸 26일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창립 10주년 파티에는 총 2,000여명이 참석했고, 헤드 테이블 게스트만도 24명인 맘모스 파티였다. 단상 오른쪽부터 이규현 캐나다대사 부인, 서준경 실협이사장 부처, 이날의 주역인 차선겸 회장부처, 아트·이글톤 토론토시장 부처, 이상훈 토론토총영사 부처, 토니·르프레 부처등이다.

실협 창립10주년 파티에 2천여명 참석

힘과 단결력의 과시

포니차 2대등 경품인기, 추첨권수입만 4만弗

한인의 캐나다 이민사상 최대규모로 인정되는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창설 10주년 행사가 26일밤 2,000여명의 교포와 300여 캐네디언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토 힐톤·하버 캐슬 호텔에서 성대히 열렸다.

코너 스토어를 주축으로 자란 교민실업계의 막강한 힘과 단결력을 캐네디언사회에 과시한 이날행사는 소수민족 그룹이 이제까지 토론토에서 가진 어떤 행사보다 규모가 큰 모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식은 하오7시35분 식기도(이상철 한인연합교회 목사), 여왕에 대한 축배(이상훈총영사), 한국과 실협을 위한 축배(닉·벨러 교도소장관), 양국국가봉창(회원 배기욱), 귀빈석(헤드 테이블)소개(사회자)로 시작되었다.

이어 이날의 주요프로그램인 차선겸회장의 인사말, 이규현 주 캐나다대사, 이글튼 토론토시장, 프랭크·드레 온타리오 사회봉사장관의 축사가 도합 40분간 진행되었다.

드레장관은 서두에 윌리엄·데이비스주수상이 보낸 메시지를 낭독했다.

귀빈들의 연설후 시상순서에 들어가 10년전 협회 창립위원이었던 이재영, 이흥준, 최광준, 전기석, 이정용씨에게 공로패를 증정했다. (이형인 전회장)

협회원 등록번호 1호인 김사만씨와 1천번째 회원 박기목씨에게 기념패를 주었다. (김영대 전회장)

서준경이사장은 김현모, 김태진, 장추국, 곽정열, 박찬도, 이상봉, 배경락, 전윤식, 구연원, 서동준이사에게 감사패를, 차회장은 욕·아이스크림, 인터시티뉴스, 코카·콜라, 한국외환은행, 코리아타운 번영회등 협찬 업체및 단체에 감사패를 전했다.

협회는 특히 같은 쇼핑센터(몰)안에 있으면서도 경쟁보다는 협조정신을 발휘해 온 회원 임연식, 김신철, 김석철씨를 모범회원으로 표창했다.

이들이 표창받을때 넓은 홀안을 꽉메운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5년 근속의 협회사무원 서선미씨도 표창을 받았다.

헤드·테이블에 앉은 인사는 이상철 목사, 존·멕더밋 브램톤지역 주의회의원 (연방 보수당 이민·고용담당 비평가) 장순채 한인회장 부부, 온타리오주 교도소 장관 부부, 프랭크·드레 사회부장관, 온타리오주 복합문화 자문위원장 메이비스·버크박사, 이규현대사 부부, 서준경 실협 이사장 부부, 차선겸 실협 회장 부부, 이글톤 토론토 시장 부부, 이상훈 토론토 총영사 부부, 최승낙 외환은행장 부부, 토니·르프레트 주의원 부부등 24명이었다.

사회자 홍중표씨(온타리오 복합문화자문위원)씨는 시종 국어와 영어로 사회를 보았다.

귀빈소개후 단하에 앉은 주요 교민인사, 협회 역대 회장, 이사장및 캐나다 생산도매 업체 대표들도 소개됐다.

식이 끝난 밤10시34분부터 연예프로와 복권추첨 순서에 들어갔다.

밤12시후에 시작된 포니자동차 2대 경품중 포니자동차 2대는 조흥래영사 부인 박정옥씨와, 실협이사 박광철씨에게 돌아갔고, 세계일주 항공권은 전 동우회 이사장 곽정열씨 소유가 됐다.

특등의 포니(6천달러 상당) 인수증서를 받은 조영사부부는 28일 아침 "교민사회를 위해 자동차를 내놓는다"고 말했다.

"국가 공무원으로 한인사회에 무언가 기여하고 싶었다. 이 자동차가 교민발전에 다소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이들은, 한인회 임원진과 구체적 반환방법을 상의할 예정이다.

또하나의 포니 당첨자 박광철씨는 회원 송중구씨에게 파티 참석권을 사주자 송씨는 답례로 복권을 박씨에게 사주었는데 그중 1장이 맞은 것이다.

이날 식에 앞서 오후4시부터 7시까지 호텔 중앙홀에서는 상품진열쇼가 열렸다. 약 200여명의 제조및 도매업자 후원으로 이루어진 쇼에는 코카·콜라, 세븐업, 펩시, 실버우드, 호스테스등의 식품가공회사를 비롯한 40여개의 업체가 부스(Booth : 진열쇼)를 설치, 큰 인기를 끌었다.

이들은 현장에서 물품 주문도 받았으며, 제품의 시범, 물품시식, 경품권추첨, 기념마크증정등도 있었다.

진열전시장 중앙에는 대형 칵테일·바가 마련되었다.

최대 참석행사

78 한인총회 1,600명

한인이민사상 교포들이 많이 모였던 실내행사로 손꼽히는 것은 78년11월25일에 있은 14대 한인회장 선거를 위한 한인회 총회 때였다.

이때 총회장인 노먼·써컨다리스쿨강당에는 약1천6백명이 모여 투표한 것으로 기록됐다. 당시 입후보자는 조한철씨및 장순채씨였다.

이밖에 80년11월15일의 「실협의 밤」 7주년 행사때는 1,200명이 토론토 힐튼 호텔에 모였고, 81년3월 프린스호텔에서 열린 배커및 맥스밀크 합동파티에는 약 9백명이 참석했다.

이번 2천명 이상이 참석한 실협파티는 과거 기록을 모두 깬 것이다.

실외행사로는 작년8월 광복절기념 체육대회의 3천여명이 기록으로 남아있다.

(3면에 계속)

◆특등(포니 1대)상을 받는 조흥래 영사 부인 박정옥씨(좌).

최동원 프로등록 동의

한국야구위…미야구협회에도 공한

(서울25일=연합)토론토 진출문제로 많은 화제를 뿌렸던 전 국가대표팀 투수 최동원선수가 롯데·자이언츠팀에 입단과 동시에 프로로 전향함으로서 오래 끌어온 미결문제가 일단락 되었다.

이 조치는 25일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최선수의 프로선수 등록을 동의함으로서 이루어 진 것이다.

수년간 한국대표팀 투수로 국제대회 상위입상의 원동력이 되어온 최선수는, 미국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입단계약 관계로 많은 물의를 일으켰으며, 아직까지도 미결인 채로 있는 중이다.

서종철 KBO총재는, 최선수의 프로가입을 인정하고, 같은날 미야구협회에도 최선수에 관한 공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서총재는 이 서류에서 최선수가 병역의무를 필하지 않는 한 미국리그에서 선수생활을 할 수 없으며, 앞으로 5년간 국내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자이언츠는, 최근 최선수와의 타협을 종결짓고 4,500만원의 계약금과 연봉 3,0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KBO는 또한 미국과 멕시코에서 프로생활을 하고 있는 이원국 선수가 MBC 청룡팀에 입단과 동시에 코리아리그에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 선수는 5,000만원의 계약금과 연봉 3,000만원에 2,000만원의 아파트구입을 위한 보너스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6개팀으로 출범한 코리아리그의 금년도 시즌은 4월2일에 시작된다.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블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해보험
497 3800 284 9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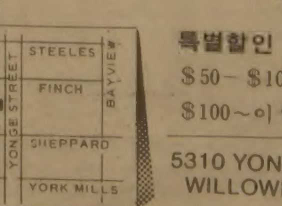
미도파 백화점
451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YOUNG I. HYUN C.A.
카나다公認會計士
현영일
444-9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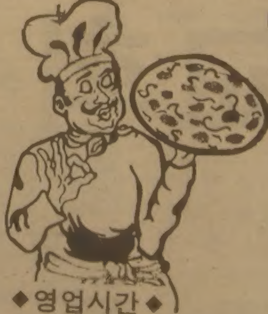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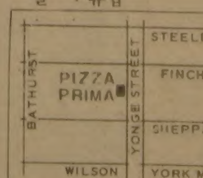
강학수종합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622-5147

은하 보석
란콤화장품 대리점
ROLEX
교포유일한 연방정부 귀금속도매및 가공공장 현허소지업체
45 % ~ 50 % OFF
오메가시계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아늑한 분위기의
"남강"에서 만납시다.
◎한식일체
◎일본식일체
◎쓰시바 4월1일부터
각종 데리야기·모리소바·
오뎅백반·쓰시·사시미
연회석(50여석)이 준비되어 있읍니다.
*영업시간 :
토·일요일 낮12시~밤1시까지
월·금요일 아침8시부터밤1시까지
南江


Restaurant & Tavern
920 YONGE ST. (north of Bloor) 923-3060
※지하 파킹장은 오후9시부터 무료이며, 특히 토·일요일은 무료입니다.

PIZZA PRIMA
RESTAURANT & TAVERN
DINNING ROOM-L.L.B.O.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이태리인이 직접 요리하는 『한국인』 경영의 피자집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순 이태리 포도주와 시원한 맥주도 겸하여서 써비스 하오니 일차 왕림해 주십시오.
Pick up Service
Delivery Service (오후 4시이후)
큰 파티를 위해서는 24시간 전에 미리 주문해 주십시요.
◆영업시간◆
화~목 : 11시30분~새벽 1 시
금~토 : 11시30분~새벽 2 시
일 : 오후4 시~자정
월 : 휴업


특별할인
$50-$100 10%
$100~이상 15%
⊙Home made pasta
⊙Meat Dishes
⊙Spaghetti or Ragatoni
⊙Sandwiches
⊙각종 주류
5310 YONGE ST. WILLOWDALE 226-1146 정태원

•봄철스페샬•
영숙 보석상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봄철 다이아몬드 세일
◆각종 고급 보석 취급
◆품질 보장 책임
◆최저가격 보장
◆보증서 발급
※오래된 보석을 개조할 수도 있으며 교환도 가능합니다.
215 Yonge St. (영×퀸북쪽)

민 영 숙
(B)368-7961 (R)690-5217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전달능력이 성공의 관건"

KUSA 세미나 40여명 참석

지난 25일 토론토대학 갈브레스빌딩에서 한인대학생회(KUSA)주최와, 대학생동창회(KUSA Alumuai) 후원으로 열린 세미나(주제 : 장래 직업전망과 이성교제)에는 학부형들을 비롯 40여명의 젊은이들이 참가했다.

이날 특히 박희민목사와 사회사업가 조성준씨의 주제강연과 토론에서 특히 이성교제에 관한 부분은 참석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었다.

데이트를 하려면 창조적인 듣는자(Creat ive Listner)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박목사는, 〈열정〉과 〈참사랑〉을 구별하는 여러가지 요소로 〈열정〉은 자기중심적이며, 예고없이 한두가지 특징만으로 이끌리는 반면, 〈참사랑〉은 키워가는 것으로 전인격적인 평가, 상대방의 성장을 위한 자발적인 관심, 1사람에 집중하는 특징이 있다고 분석했다.

조성준씨는 국제결혼에 언급, 지적수준이 높은 경우와 서양남자와 동양여자와의 결합일 경우 성공률이 크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있은 〈장래의 전망〉에 관해서 첫번째 강사인 윤택순 토론토대학 물리학교수는, 현재 대학교수가 되려는 사람들의 전망은 대단히 어둡지만 현역 교수들이 은퇴하는 시기가 될 90년대에는 취업전망이 커질 것으로 보며, 교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질문을 많이 하라고 충고했다.

현재 보험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토론토대학 상과 졸업생 최기연씨는, 개인의 경험담을 통해 전공이외의 활동도 열심히 할 것과, 자신의 능력에 확신을 갖고 자기를 잘 보일수 있도록 애쓰며, 그러기 위해서는 코뮤니케이션·스킬을 높이라고 충고했다.

콤퓨터·프로그래머인 박성수(한인 콤퓨터협회 회장)씨는 콤퓨터가 일반화되면서 오히려 콤퓨터분야의 취업전망은 어두워졌다고 말하고, 어떤 전문분야로 진출하던 메니저이상급의 직원에 필수적인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내는 능력이므로 커뮤니케이션·스킬을 개발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KUSA는 제4회 수학경시대회및 제1회 문학작품응모대회 시상식을 가졌다.

문학작품대회를 주관한 이영희씨(욕대학)는, 응모자가 적어 전원 장려상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입상자는 정지영양, 김영애양, 박용배군, 박주희양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모두 고등학교 학생이다.

◆제4회 수학경시대회에서 시니어부 1등에 입상한 박순상군이 구상희 박사로 부터 상금 150달러와, 상패를 받고 있다.

150회 생일맞는 토론토시

축하 행사준비로 부산

토론토시는 내년 시창설 150주년을 맞아 사상최대의 생일파티를 준비하느라 부산하다.

아트·이글톤시장은 25일 앞으로 1년여간 계속될 대대적인 행사를 소개하고 안내초청장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토론토시는 이 행사를 위해 약 $860만의 예산을 책정하고 시 역사상 최대의 축제를 벌려 토론토시의 위용과 우의를 세계에 소개한다.

주요 초청인물에는 엘리자베스여왕도 포함되어 있으며, 여왕은 왕실요트인 「브리타니카」를 타고 7월1일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황 바오로2세도 초청되었는데 가능하면 금년 9월경에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식기념식은 시창립일인 내년 3월6일 저녁 나단 필립·스퀘어(Nathan Plilip Square)에서 열린다.

이날 밤 자정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시청광장에 모여 생일축하노래를 부르고 불꽃놀이를 즐기게 된다.

세라톤센타에서는 약 3,500명 내외귀빈이 참석하는 대 향연이 열리며, 시 11개 선거구에서도 지역적 축하행사를 벌린다.

한편 이 기간동안에 세계의 유명한 음악가들의 연주및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후론씨슬트 남성합창단, 일본 가다 칼리무용단등이 초청되어 공연하며, 세계 35개 도시의 시장들이 모여 국제시장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행사준비위원회는 축제분위기를 돋구기 위한 로고(기념마크)와 기념 마스코트를 선정하여 판매하며, 시소유의 모든 차량에 시청을 배경으로 하고 150주년을 축하 문귀가 있는 로고를 부착하고 다니게 된다.

마스코트는 꼬리가 탐스러운 검은 다람쥐로 결정되었다.

이글턴 시장은 28일 1년간 계속되는 각종 생일기념행사의 오프닝선언을 하게 되며 이날 150주년 기념찬가도 선보이게 된다.

이 행사의 경비중 $66만은 기부형식의 모금과 로고와 마스코트판매 이익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시정예산으로 집행한다.

일부 여행업자들은 벌써부터 이 행사를 겨냥하고 관광안내 및 특별 Package를 만들어 한 몫볼 준비에 여념이 없다.

◆토론토시 창립 150주년 기념 로고(마크).

로토 당첨발표

26일밤 거행한 Lotte 6/49 추첨에서 상금 3,895,389,50달러가 걸린 1등상(Tackpot)은, 패배주에서 팔린 번호 21-24-25-32-39-49에게로 돌아갔다. 이금액은 면세이며, 북미 복권상금사상 최대 금액이다.

2등상은 위의 6개 숫자중에 5개는 같고, 나머지 하나는 40이었던 2명이 당첨되었다. 2명중 1명은 역시 패배주이고, 또 1명은 서부캐나다에서 판매된 복권이다.

1달러짜리 티켓의 총판매수는 13,959,277매였으며, 온타리오주가 5,786,970매로 최고의 판매실적을 보였다.

스카보로 시로 승격

6월29일 기해

스카보로(borough)가 시(City)로 승격된다.

온타리오주정부는 이미 스카보로의 시 승격계획을 승인했으며, 이에따라 오는 6월29일 공식적으로 시로 승격 된다고 거스·헤리스 시장이 밝혔다.

토론토와 노스·욕에 이어 메트로·토론토에서 세번째의 시가 될 스카보로는 시티·오브·스카보로(City of Scarborough), 혹은 스카보로·시티(Scarborough City)로 불리워지게 된다.

헤리스시장은 4월초 옴·웰즈 온타리오주정부 장관이 시승격을 승인했음을 밝히게 될 것이며, 이로써 스카보로가 문화의 황무지라는 인상을 씻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6월29일은 스카보로·시빅·센터가 생긴지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시로 승격되는데는 제제나 재정적인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으나, 이미지 개선 혹은 산업유치면에서는 이점이 있다.

스카보로가 시가 되면 메트로·토론토는 토론토, 노스·욕, 스카보로의 3개시와 욕, 이토비콕, 이스트·욕의 3개 보 로 이루어진다.

토론토시의 인구는 65만명으로 1위, 노스·욕은 56만3천명으로 2위이며, 스카보로는 44만5천명이다.

金聖鍾작

萬5의 사나이

최경과 恐怖의 추리소설

<200>

어머니와 아들

⑦

아들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고…

그는 진실을 캐려는듯 가만히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물었다.

『동생하고 저하고는 몇 살 차입니까?』

『일곱살 차지.』

『그럼 지금 서른 여덟쯤 됐겠군요?』

『아마 그럴거다. 네가 지금 몇 살이지?』

『마흔 다섯입니다.』

『벌써 그렇게 됐구나. 참 세월 빠르다. 네 동생은 유복자나 마찬가지였지. 네 아버지는 너를 낳자, 몹시 나를 구박했지. 물론 제 자식이 아니라고 너도 구박했지. 그러다가 따로 줄곧 여자를 얻어 살림을 차렸지. 나는 이게 내 운명이려니하고 원망도 하지 않고 참았지. 그렇다고 네 아버지가 나를 완전히 잊은 것도 아니였단다. 가끔씩 나를 찾아오기도 하고 생활비도 대주고 했어요. 그러다가 네가 일곱 살때인가 여덟살때 자기 나라로 돌아가버렸지.』

『대만으로 말입니까?』

『그래. 그러다가 나중에 홍콩으로 가서 살았지. 중국인이라서 그런지 그래도 의리는 있어서 어디 가든 편지 연락은 했고 얼마씩 돈도 부쳐주곤 했단다. 그 사람이 나를 버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때 나는 네 동생을 배고있었지.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뒤 넉달 후에 나는 네 동생을 낳았단다. 그 애는 영낙없이 제 애비를 닮아서 제 자식이 아니라고 우길수도 없게 되었지. 나는 사진을 찍어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보냈지. 그랬더니 왕조문(王朝文)이라고 써보냈어. 그러면서 편지에 쓰기를 며칠후에 사람을 보낼테니 아기를 그 사람편으로 보내라고 했다. 며칠이 지나니까 정말로 사람이 왔어. 중국여자였지. 나는 처음에는 안주겠다고 버티다가 자식은 애비를 따라가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는수없이 그 핏덩이를 내주고 말았지. 그때 나는 얼마나 울었던지…』

노파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십시오. 말씀 하시지 않아도 다 알고 있읍니다.』

朴男 그림

『아니다. 네가 알리가 없지. 남말하고 싶은 건 말해야 속이 풀려.』

그녀는 과거를 털어놓음으로써 마음속으로나마 속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것같았다.

그녀가 다시 이야기를 이었다.

『그애를 보내놓고 나니까 세상 살 맛이 없더구나. 나는 생각끝에 너를 고아원에 맡기고 절로 들어가 중이 되었단다. 세상을 잊으려고 했었지.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않았어. 날이 갈수록 더 괴롭기만 하고 도무지 중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절에서 2년만에 다시 속세로 내려왔단다. 내려오자 먼저 너를 찾았지만 너는 이미 고아원을 떠났었어. 밤으로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나같이 몹쓸 년이 살아서 무엇하나 죽을까도 생각했었지. 하지만 모진것이 목숨인지 세월이 지나니까 그런저런 또 살아가게 되더구나. 그때만해도 젊어서 손을 뻗어오는 남자들이 많았었지. 젊은 여자가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illegible]』

66년만에 찾은 수표

이자와 함께 원금지불

크리스마스 카드가 1년뒤에 배달되었다는 소식은 종종들어왔으나, 이번에는 캐나다·뮤추얼·생명보험회사가 66년만에 발견된 수표에 대해 이자와 함께 원금을 지불해와 화제.

마니토바에 살았던 고 로버트·스패로씨는, 1916년에 보험회사로부터 그의 생명보험금의 일부로 $239,02의 수표를 지급받았었다.

그러나 그는 이 수표권의 발행은행인 캐나다 유니온은행에서 현금을 지불받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스패로씨의 손녀딸인 (의사 샬린·토버트슨씨가 우연히 가정문서속에서 이 수표를 발견하고 이 회사에 조회하게 된 것이다.

위털루에 본점이 있는 이 보험회사는, 이에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원금과 그 간의 이자를 가산한 총 $3,467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현재 사스카추안에 살고 있는 스패로씨의 2딸은 이 금액을 양분한 $1,738,61씩의 돈을 지불받게 되었다.

동양학생 과학·수학서 두각

1.5% 인구로 우수자의 3분의 1 차지…「타임」보도

한국을 비롯 중국, 일본, 베트남등 아시아계의 학생들이 과학, 수학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음이 구체적인 통계로 나타났다.

타임지 보도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 회사에서는 미국전역에 걸쳐 고등학생을 상대로 과학부문 우수학생 40명을 선발했는데 이중 33%에 해당하는 12명이 아시아계 학생으로 밝혀진것이다.

올해 하버드 대학 1학년생들중 10%, 웨스팅하우스 우수학생중 33%가 아시아계 학생이라는 점은 미 전체인구중 1.5%만이 아시아계 라는 점에서 아시아계 학생의 우수성은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아시아계 학생들의 우수성에 대한 원인분석도 여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많은 미국의 교육전문가들은 "아시아계 학생들의 우수성은 선천적이 아니고 교육훈련과정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말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미국고등학교의 1년 수업일수는 180일인데 한국과 일본의 경우 225~250일 인것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교육제도에 습관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 미국에 이민을 경우 미국학생들보다 많은 시간을 학습에 쏟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메사추세츠 주립대학의 제임스 블랙웰교수는 대부분의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높은 교육수준과 그에 상응하는 교육열이 있으며 평균 가정수입이 미국 전체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교육비 지출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국의 심리학자 리차드 린씨는 작년에 발표된 자신의 연구자금을 통해 미국인들의 지능보다 아시아인들의 지능이 11포인트정도 높다고 밝힌바 있는데 아시아계 학생의 과학, 수학분야의 우수성은 거의 선천적이라고 말하는 한 교육전문가는 아주 어릴때에 미국에 이민은 아시아계 학생의 우수성에서 교육제도의 차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어 진다고 말했다. 그리고 생활의 안정을 위해 돈을 버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투여하는 이민자들의 2세들에 대한 교육열에 제한이 있다는데서 부모의 교육수준과 교육열로 인한 아시아계 학생의 우수성의 주장도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CBC도 윤리규정 지켜야 한다"

—대법원 판시—

(오타와)캐나다대법원은 24일 CBC(Canadian Broadcasting Corp.)가 공영방송이라고 할지라도 방송윤리나 도덕에 저촉이 될 때는 일반방송과 꼭같은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판시했다.

지난 76년에 방영된 스페인작품 극영화 "I'll go like a Wild Horse(야생마와 같이 달리련다)"가 너무나 노골적인 성묘사를 한 음란영화라는 항의와 잔인하고 자극적인 장면을 방영했다는 시청자들의 불평에 따른 온타리오 법무부의 고발에 따라 대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8페이지로 된 판결문을 통해 "법은 2개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않고 누구를 막론하고 한 규정안에서 준수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그렇기 때문에 CBC가 일반 방송국과 다를 것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온타리오주 법원은 이 영화 자체의 음란여부에 대한 공청회를 곧 열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 원자핵붕괴 발견

-캘리포니아대학 연구팀-

(뉴욕)캘리포니아대학 로렌스·바클레연구소팀은 원자핵이 2개의 양자를 동시에 방출하여 파괴하는 새로운 타입의 원자핵 붕괴를 최근 발견했다. 이것은 이제까지 이론적으로는 예측되었으나 실증되지 못했던 것으로, 이는 5번째의 원자핵 붕괴가 된다.

원자핵 붕괴는 이제까지 원자핵이 파괴될 때 방출하는 것에 따라 (1)알파붕괴(중성자와 양자의 2개로 이루어지는 헬륨원자핵을 방출), (2)베타붕괴(전자를 방출), (3)감마붕괴(빛을 방출), (4)양자방출 붕괴로 4종류가 알려져 왔다.

2양자 방출로 말미암은 방사성 붕괴는 양자의 수가 많아서 극히 불안정한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할때에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불안정한 원소를 만들어내기가 어렵고, 실증이 곤란한 것으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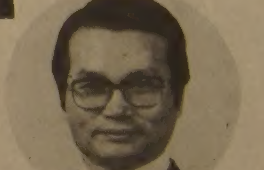
이번에 관측에 성공한 것은 양자 13개와 중성자 9개로 이루어진 알미늄 22개와, 양자15개와 중성자 11개로 이루어진 린26이다. 알미늄2는 우선 양전자를 방출하여 마르네슘22가 되며, 이어 양자2개를 방출해 네온20이 됐다.

이번의 성공은 원자핵에 작용하는 힘을 해명하기 위해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연상만 건축설계 사무실
SANG-MAN YOUN ARCHITECT
161 EGLINTON AVE. E. SUITE 702
484-4895 · 484-6110(B), 492-7472(R)

중앙한인 연합교회 안내

할렐루야! 중앙한인연합교회는 하나님의 선히 인도하심과 은혜로, 미국 텍사스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시던 김택규 목사님을 담임목사로 모신 이래 나날이 부흥 성장하고 있음을 감사드리오며, 아래와 같이 본 교회의 집회와 활동을 안내하오니 누구시던지 참여하셔서, 창조적이고도 축복된 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옵니다.



김택규 담임목사

집회 및 활동

예배 주일대예배 : 주일 오후12시30분
제1부예배(청년) : 주일 오전11시30분
영어예배(청소년및 대학생) : 주일 오후1시
수요예배 : 수요일 오후7시30분
금요기도회(노년) : 금요일 오후7시30분

구역기도회 각구역별 : 금요일 오후8시

새벽기도회 매주 토요일 : 6시30분

주일학교 영아부 : (비에오시설)
어린이 : 주일 오후12시30분
중고등부 : 주일 오후12시30분
장년부 : 주일 오전 11시30분

복음의 다이얼

전화번호 : 922-0605를 돌리시면 3분간의 설교를 들으시게 됩니다.
(매주 수요일·일요일 2회 새로 녹음이 됩니다)

○교회에 대한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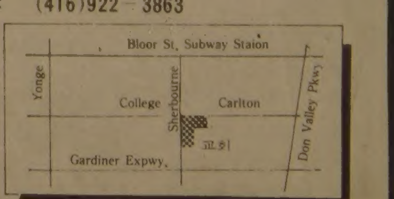
심방담당장로 : 이창록(241-4869)
당회 서기 : 윤여화장로(621-0323)
교회 사무원 : 한예숙(922-3863)

김택규 담임목사약력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 졸업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특별과정) 수료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신과대학원 졸업(M, Th)
◉서울 대신교회 창설및 목회
◉해병대사령부 군종과장
◉해군본부 군종차감
◉미국 달라스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7년)
◉동교회 목회중
▲성전 건축 완료
▲루이지아나에 지교회(쉬립포트한인교회) 설립
▲북미주 여러 교회에서 부흥회, 제직수련회, 사경회인도
◉달라스 한인교회 교역자협회 회장 역임
◉미연합 감리교회 중남부대회 한인교회 연합회 회장 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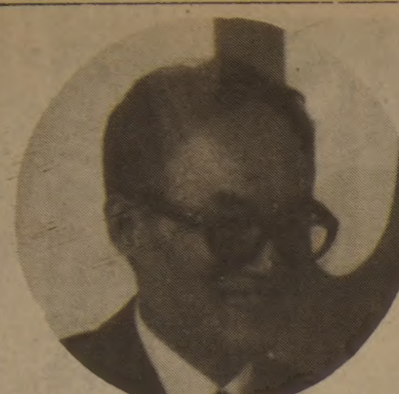
교회위치 (Calton과 Sherbourne 만나는 곳)

○주소 : 353 Sherbourne St. Toronto, Ontario M5A 2S3
○전화 : (416)922-3863



—중앙한인연합교회 선교위원회 드림—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공로상을 수상한 실협 초대회장 이재영씨.

◆인기를 끌었던 상품진열쇼. 일부 참가자는 껌, 칩스, 콜라등을 얻어가기도 했다.

〈1면에서 계속〉

최대규모의 실협 파티

배삼룡 불참
국경서 입국안돼

실협파티에 초청된 인기 코메디안 배삼룡씨가 사고로 나오지 못해 일부 참석자들을 실망시켰다.

배씨대신 사회를 보던 가수 태진아씨는 "배선배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잃어버려 못왔다. 배삼룡쇼를 보고자 하는 사람은 묵고있는 버팔로 죤슨호텔 308호실로 가라"고 말했다.

「실협의 밤」준비위원회의 한 간부는 "배씨의 미국임시거주허가 기간이 지나 버팔로 국경에서 캐나다관리들에게 제지당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이민국은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는 사람은 입국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작년초 토론토와 에드몬톤 공연차 한국을 나온 배씨는 미국영주권자와 재혼, 영주권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설에 의하면 배씨는 국경에서 세관신고 없이 자신의 녹음테이프를 다량으로 들여오다가 적발되었다. 조회결과 배씨가 과거 토론토에 공연차 왔다가 체류기간을 넘긴 사실이 나타나서 입국치 못한 것이라고,

경품권에 관심집중

실협은 이번 파티에서 5달러짜리 경품권 약8천장을 팔아 약4만달러의 가외수입을 올렸다.

디너가 거의 끝날 무렵 협회임원들이 각 테이블을 돌며 경품 복권을 팔기 시작했고, 11시정각 선·라이프보험인 백용빈씨 사회로 1차 경품권 추첨이 시작됐다.

시간절약상 26등이하 추첨과 특등및 1, 2, 3등이외의 당첨자에 대한 시상은 추후 협회사무실로 미뤄졌다. 우선 25등부터 10등까지의 경품권을 가수 서유미씨가 뽑았다.

12시께 2차로 9등부터 3등까지 추첨이 있은 뒤, 이날의 피크인 현대자동차가 내놓은 자동차1대의 특등, 실협임원과 이사진이 내놓은 역시 포니 1대의 1등, 외환은행이 내놓은 세계일주 여행권 1매의 3등 추첨이 시작됐다.

원래 경품은 실협 임원진이 내놓은 차 1대뿐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마지막 순간에 「현대」에서 1대를 기증, 총 2대로 밝혀지자 경품권이 날개돋힌듯 팔렸고, 장내의 열기도 고조됐다.

최승낙외환은행장의 추첨으로 5천달러 상당 세계왕복항공권을 탄 곽정열씨 부부는 28일 아침 "항공권 대금을 외환은행에 예금, 1만달러정도로 불어나면 그때 부부가 함께 세계일주하겠다"고 말했다.

모두들 군침을 삼키며 기대했던 포니자동차가 박광철씨 부인과 조흥래영사 부인에게 돌아가자 두 여인은 어리둥절, 할 말을 잊었다.

참석자들은 낙첨이 밝혀지자 우르르 자리에서 일어섰다. 새벽2시가 가까워 올 무렵이었다.

◆헤드·테이블단상의 가장 훤출한 커플로 지목(?)됐던 아트·이글튼 토론토시장 부부.

◆포니 승용차에 당첨된 실협회원 박광철씨 부인(왼쪽)과 서이사장.

파티장 주변 스케치

◆이규현대사의 연설이 조만간 끝날 기미가 안 보이자 안내담당 P회원은 연설을 짧게 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과거 한인사회에서 단독데모도 벌였던 그가 단상으로 뛰어오르지 않을까 하고 일부서는 크게 우려했다.

◆디너중 "○○○를 찾읍니다"라는 여자의 목소리의 어나운스가 있자 여자 사회자인가 했더니 바로 협회원이었다. 2천명이상이 모이다보니 동행자 만나기가 쉽지않은 사정은 이해가 가지만, 공식만찬도중 여러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나오는 것은 격에 어울리지 않았다. 이날 이런 종류의 발표를 원하는 사람이 무려 10여명이 넘었다고 주최측은 말했다.

◆포니차등 사상 최대의 푸짐한 상품이 걸린 추첨권이 사상 최고가격인 5달러씩에 판매되기 시작하자, 모회원은 기다렸다는듯 50달러짜리 캐쉬를 한뭉큼꺼내 사는가 하면 180달러를 내고 36장을 사서 테이블에 진열, 구경꺼리가 된 회원도 있었다.

◆캐네디안들은 추첨권 가격에 놀라는 표정이었다가 경품이 뭔줄 알고는 여러장씩 샀다.

◆단상 귀빈석 바로 아래의 예약석(Reserved Table)에는 한국전 용사인 죤·클락씨와 한국인 허용수씨등 6명이 예벼역군복에 훈장을 달고 앉아 이채를 띠었다. 옆 테이블에는 토론토시의원 잉·호프씨, TTC 코미셔너, 경찰관계자, 인권옹호협회 책임자들, 상품쇼출품업체장들, 토론토주재 한국공관원, 기관장, 각 신문사 기자단등이 자리를 잡았다.

◆자리가 모자라자 먼저 입장한 회원들은 70여석의 예약석을 차지했다가 후에 출품업체장등 초대인사들이 나타나자 자리를 내주고 새자리를 찾느라고 진땀.

◆회원들과 일반 교민들이 자꾸 입장하자 협회측은 댄스·플로어 일부에 테이블을 놓게해 자리를 마련했다. 그래도 부족하자 임원, 이사 70여명은 모두 좌석을 양보, 홀 바에서 교대로 식사했다. 출입구 근처 테이블에는 12명정원을 오버 13명이 붙어 앉기도 했다.

◆식이 길어지자 지루한 기색을 보이던 참석자들은 시상순서에서 서준경이사장이 시상이유를 "이하동문"이라로 압축하자 박수를 보냈다.

◆모처럼의 외출기회를 얻은 주부들(동업자 ?)은 아름다운 한복과 양장등으로 장내를 빛냈다. 특히 한 그룹의 부인들 5명 모두가 고급밍크 코트를 입고 호텔 정문을 들어와 눈길을 끌었다.

◆이날 출연했던 연예인들, 좌로부터 최진이·서유미·배성·조경미·태진아.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 서적
액자 및 성화
초상화
☎ : 532-7909
549 BLOOR ST

상업건물및 주택 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964-6834(B)
226-0375(R)
643 Yonge St (3rd fl)
General Contractor
Daewha Developments Limited
대화개발주식회사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디오 기계 · 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 병 헌

Canadian Distributor:
J. C. GOLF Enterprise Ltd.

J.C. Golf Enterprise Ltd.
2779 Thamesgate Drive,
Mississauga, Ontario L4T 1G5
(416) 671-4555/678-2444

봄철 대매출

시즌 오픈을 앞두고 교민 여러분께 도매가격으로 봉사코자 하오니 일차 왕림하시기 바랍니다.

정정홍 올림

PSS THE PERFECT SWEET SPOT
Beauwood CALIFORNIA INC.

PRE SEASON SALES

JUNIOR OR STARTER SETS	Sale Price	Reg. Price
1 Driver	45.00	75.00
4 Irons	96.00	196.00
1 Putter	12.00	26.00
7" Golf Bag	27.00	46.00
1Head Cover	N/C	4.00
Total You Save 167.00(92%)	180.00	347.00
J.C. CUSTOM IRONS(Ping Copy)		
#3-PW 26.00× 8 pcs	208.00	392.00
#2-PW or SW 25.50× 9 pcs	229.50	441.00
#2-SW 25.00×10 pcs	250.00	490.00
You Save 240.00		
J.C. CUSTOM SAND IRON (Custom Classic)	29.00	58.00
BEAUWOOD PRO MODEL IRONS (Forged) #3-PW	299.00	512.00
BEAUWOOD UNIFORM FLEX IRONS #3-SW(9 pcs)	324.00	531.00
BEAUWOOD COLLECTOR'S EDITION IRONS (Model BW-33) #3-PW	384.00	544.00

WOOD SALES

	Sale Price	Reg. Price
BEAUWOOD PRO MODEL Persimmon Wood Open Stock	49.00	95.00
BEAUWOOD PRO MODEL Persimmon Woods #1-3-4-5 67.00×4	268.00	380.00
BEAUWOOD COLLECTOR'S EDITION Model BW-33 Persimmon Woods		
#1-3-5 89.00×3	267.00	390.00
#1-3-4-5 85.00×4	340.00	520.00
J.C. CUSTOM PERSIMMON WOODS (Personal Model) #1-3-5 66.00×3	198.00	285.00
J.C. CUSTOM PERSIMMON WOODS (Englishman Model)		
#1-3-5 69.00×3	207.00	297.00
#2 Wood	72.00	99.00
50' The Authentic Persimmon Wood (Year of 1955 Original Head) Single Wood	95.00	200.00
UP-SHOT PUTTERS	29.00	48.00

한국일보

美, 미사일邀擊 新兵器개발

蘇핵무기 空中서 파괴
「대량報復의한 核戰抑止」변경
레이건, TV演說서 宣言

【워싱턴=李文熙특파원】레이건美대통령은 23일 미국이 공격해오는 적의 核미사일을 도중에 파괴함으로써 소련의 핵병기체제를 무력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수 있는 超強力병기의 개발을 미래의 방위체제에 관한 계획을 발표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날밤 8시 (한국시간 24일 상오 10시)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한 전국TV연설을 통해 초강력 병기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이 병기가 미사일요격체제라고만 밝힌채 우주, 또는 지상배치 레이저광선이 될수도 있는 이체제의 구체적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백악관보좌관들은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발표된 이계획이 소련의 선제공격시 핵무기에의한 대량보복으로 이에 대응한다는 지난30년간의 미국核전쟁억지전략이 크게 바뀔것임을 예고하는것이라고 밝혔다.

레이건 대통령은 자신이전략核미사일에 의해 가해지고 있는 위협을 제거한다는 우리의 궁극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적인 연구, 개발계획을 확정하는데 필요한 포괄적이고도 집중적인 노력을 개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병기자체의제거를 위한 군축조치의 길을 열어줄수있을 것이라고말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의 모든 국민들도 의견을같이하는 우리의 단 한가지 목적은 핵전쟁의 위협을 감소시킬수있는 길을찾는것이라고 덧붙였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어『지금까지 우리는 大量報復위협을 우리의 핵전쟁억지전략의 토대로 삼아왔다』고 지적, 자유세계의 안보가 소련의공격에 대한 즉각 보복위협에만 의존할수없는 마당에서자유세계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수 있으려면 우리가 소련의 전략탄도미사일이 우리 영토나 우리 동맹국영토에 도달하기전에 이를 요격, 파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초강력병기의 개발이 금세기말 이전에는 성취될수 없는 만만하지 않은 과제임을 알고 있으나 현재의 기술이 이러한 과제에 착수해도 좋을만큼 정밀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레이건대통령은 수년 또는 수십년이 걸릴 이같은 병기의 실용화가 이루어지기전에는 미국이 기존의 핵억지태세를 포기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으나 행정부관리들은 이계획은 확정돼있지않은 이계획의 방향과 구조에관한 결정이 앞으로 수개월내에 내려질것이라고 밝혔다. 한 관리는 앞으로 개시되는것이 계획을위한 연구이긴 하지만 레이건대통령이 이같은 발표를 하게된 동기는 현대적이고 즉각 대응할수있는 공격용 핵무기 건조및 배치의 필요성에대한 대안이 있다는 희망을 주려는 레이건대통령의 결의에있다고 설명했다.

레이건대통령은 또 소련과 쿠바가 중미지역에세운 군사시설들의 고공촬영사진을 공개하면서 소련은 지난20년동안 막대한 군사력을 축적했다고밝히고 그들은 방위에필요한법적군사력을 초과한 군사력축적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고지적했다.

레이건대통령은 소련과의 군비감축, 특히 핵무기감축에 관한 합의를모색할것을 계속하고있다고 강조하고 오는31일 로스앤젤레스에서 행할 연설에서 이문제에 관해 보고하겠다고 다짐했다.

미관리들은 앞서 레이건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연설에서 미사일의 전면적인 제거에관한 합의가 이루어질때까지 잠정적인 유럽배치중거리 미사일제한협정을 체결하도록 제의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레이건대통령은 23일 밤의 연설에서는 이에 관해 아무런 시사도 하지 않은채 그의 제로옵션(영의선택)안을 재확인했다.

◇로널드·레이건대통령이 23일밤8시 (한국시간24일상오10시) 백악관서 TV를통한 국정연설을하고있다. 【워싱턴23日UPI=聯】

蘇안드로포프 臥病중
WP紙보도 지난週 腎臟病치료받아

【워싱턴=聯】소련공산당서기장 유리·안드로포프(68)가 신장병때문에 지난주간병원치료를 받아왔다고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가 24일 모스크바발로 보도했다.

이신문은 정통한 소련소식통과 외교관들을 인용, 안드로포프가 만성신장염을 앓아왔으며 지난주에는 병원가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소식통들은 그러나 안드로포프의 증세가 우려를불러일으킬만한것은 아니며 금주중에는 공무수행을 재개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드로포프는 지난15일 바르샤바조약국과 쿠바 몽고 라오스 베트남등 소련권 상담지도자회의에 참석한 이래 공식석상에서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신문은 이어 안드로포프서기장취임이래 매주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온 정치국이 지난주 정기정치국회의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지 않은 다음부터 모스크바에서는 뭔가 이상이 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 미사일配置땐 蘇, 쿠바에 SS20

【디트로이트AP聯=特】미국이 유럽에 신형미사일을 배치할경우 소련은 쿠바나 니카라과에 SS20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위협했다고 24일 보도됐다.

이같은 보도는 24일자 디트로이트·프리·프레스紙등 여러신문에 보도됐다.

美下院小委 對韓 軍事차관 通過
7천만弗 부활

【워싱턴=李文熙특파원】美하원외교위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는 23일하오 행정부가 요청한 83년도 對韓대외군사판매차관(FMS)중 삭감됐던 7천만달러의 부활요청을 이의없이 통과시켰다.

7천만달러 부활안은 오는 4월중순 외교위전체회의에 다시 상정된다.

이날 스테펜·솔라즈위원장은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을뿐아니라 가장 위험한 지역의 하나라는 행정부의 견해를 받아들인다고 말하고 이의통과를선포했다.

7천만달러는 83년 對韓FMS 2억1천만달러중 삭감됐던 것인데 행정부는 이의 부활과 함께 84년도FMS를 금년보다 9%늘어난2억3천1백만달러를 요청하고있다.

"亞太지역 軍협력有益"
全대통령, 세미나參加 각국代表 접견

全斗煥대통령은 24일 하오 청와대에서 제7차 太平洋지역 육군管理세미나에 참석한 각국 수석대표18명과 초청연사3명등 21명을 접견하고 다과를 베풀며 환담을 나눴다. (사진)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아시아·太平洋지역에 있어 高潮돼가고있는 긴장도를 감안할때 太平洋지역국가들의 軍간부들이 모여 軍의 육성과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상호협력관계를 정립시켜나가는 일은 이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매우 큰기여를 하게될것』이라고 말했다.

이자리에는 尹誠敏국방장관, 黃永時육군참모총장, 포레스터美西部司사령관이 배석했다.

아마드 말聯國王 국립博物館 관람

말레이지아의 아마드·샤國王은 訪韓3일째인 24일상오 日氣불순으로 玉浦조선소를 시찰하려던 당초일정을 바꿔 국립중앙박물관을 관람했다.

아마드·샤국왕은 이어 이날하오 水原에있는 三星전자공장을시찰했다.

스리랑카 首相 29일 공식訪韓

【콜롬보UPI=聯】라나싱헤·프레마다사 스리랑카수상이 한국과 미국등 6개국을 공식방문하기 위해 오는 26일 출국한다고 스리랑카 수상실이 23일 발표했다.

수상실은 이날 공식발표를 통해 프레마다사 수상이 오는 29일 한국에 도착하여 4월1일까지 머물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표는 또 프레마다사 수상이 한국방문에 이어 미국, 영국, 프랑스, 핀란드, 쿠웨이트를 차례로 방문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순방중 각국정부지도자및 관계관리들과 만나 상호협력문제와 對스리랑카투자및지원증대방안을 토의할것이라고말했다.

國會法개정 논의 民韓 總務團회의

民韓黨은 24일 총무단 연석회의를 열고 국회법 改正문제를 논의했다.

이날회의는 국회운영위의 국회법심사 小委활동을 오는 4월말로 완료한다는 지난정기국회때의 與野합의와관련, 다각적인 접촉을 통해 국회법 개정을 여당측에 촉구하고 심사小委를 조속한 시일내에 소집하자는데 의견을모았다.

회의는 또 民韓黨과 국민당의 개정안중 상충되는 부분을조정, 野黨圈의 單一案을 마련키위해 의견조정작업을 적극펴기로 했다.

百65개業體 취업制限
첫 公職者윤리委 千4百여職位 退職공직자

정부는 公職者倫理法 시행후 처음으로 24일 중앙청에서 金相浹국무총리주재로 정부공직자 倫理委員會 1차회의를 열었다.

이날회의에서 朴贊兢총무처장관은 금년 1월1일이후 추진된 재산등록상황을 보고, 대상자 6백44명가운데 연기신청자 2명 (국민당소속 金鍾河·林德圭의원)을제외한 6백42명이 등록했으며 退職公職者의 就業이 제한되는 관련職位는 약1천4백개라고 밝혔다.

또 이날 회의에선 1월말 재산등록마감이후 新規로 任用됨에따라 늘어난 등록예정자는 12명이며 그중 6명이 등록을 마쳤고 轉補에 따라등록사항변동신고를 한 사람도 1명이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실시에 대해서는 營利私기업체와 관련이있는기관이 재무부등 1백8개이며 관련이 없는기관은 법제처등 57개기관인것으로 보고됐다.

또 퇴직후 취업제한과 관련이있는 협의 대상기관은▲행정기관 63개▲有關단체 1백2개등 모두 1백65개인것으로 밝혀졌다.

人工심장이식 112일만에
클라크博士 死亡

◇人工심장 이식수술 1백12일만에 숨진 클라크씨。

【솔트레이크시티UPI=聯】세계최초로 영구인공심장 이식수술을 받은 바니·클라크씨가 23일밤 복합적신체기능악화로 사망했다고 유타대학부속 메디컬센터 대변인이 발표했다. 향년62세.

전직치과의사였던 클라크씨는 작년12월2일 폴리우레탄과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인공심장 이식수술을받고 1백12일간을 버티어왔으나 드디어 사망한것이다.

유타대학 부속 메디컬센터의 체이스·피터슨박사는 이날 클라크씨가 중태에빠져 중환자실로 급히 옮겨진 후 집중적인 치료를 받고있을때 클라크씨의 내장세포가 의사들의 우려대로 경색, 혹은 파괴됐을경우 2~3일내에 사망할 가능성도있다고 경고했었다.

클라크씨는 이날상오 인공심장으로부터 방출되는 혈액량이 정상치인 분당6~8리터에서 2·2리터로 갑자기 떨어져 중환자실로 급히옮겨졌으나 자연적으로 정상을회복했었다.

한편 그의임종은 부인우나로이여사가 지켜보았다고 메디컬센터의 존·드완대변인은 전했다.

地自制등 民主政治발전
民正, 강령·基本정책 改正案발표

民正黨은 오는29일 全黨大회에서 채택할 綱領및 25개 기본정책개정안을 24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은 현 10개항의 綱領중「민주정치」와「지방自治制」항목을 합쳐 民主·지방자치로 단일화하여 9개항으로줄이고 綱領前文에「선진조국 창조의 역사적偉業」을 추가했다.

개정된 강령은 또 지방자치와 관련『모든국민의 자발적참여를 통해 지방자치를 비롯한 민주정치를 발전시켜나간다』고 밝히고 기본정책에서『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고 참여의식을 드높이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켜 지방자치제를포함한 민주제도의 발전을 기한다』고 明文化했다.

對蘇관계 改善
이집트, 年內에

【카이로UPI=聯】이집트는 소련·불가리아·키프로스와의 악화된관계를 개선할 계획으로있으며 연내로 이들3국과 대사를 교환할 것이라고 카말·하산·알리 이집트 外相이 24일 밝혔다.

알리外相은 이날 알·무사와르誌와의 회견에서『외교적 불화를 초래한이유들이 이제는 해소되었기때문에 금년중 소련등 동구국가들및 키프로스와 대사를 교환할수있게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집트와 蘇聯은 각각 상대방 수도에 대리대사를 두고 있으며 키프로스·불가리아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社會漫評

무서운 세상이 된건지…
안심할수있는 세상이 된건지…

地平線

六國合從에 성공한 蘇秦이 향리에돌아왔을적의 얘기다. 대우가 너무나 달랐다. 일년전 遊說에 실패하여 빈털터리로 집에 돌아왔을때 베틀짜던 아내가 초라한몰골의 남편을 반기지 않은것은 암만했지만 형수는 끼니마저 굶게 했었다. 허풍만떠니 모두가 상대를 안했던 것이다.▼한데 일년후 六國宰相을 겸하게돼서 車馬黃金을 듬뿍받고王侯못지않은 호화행렬로 집에 돌아 오니 집안 식구들은 머리를조아리고 고개를 들지 못했다. 형은 즉『지위가 달라지고 큰부자가됐으니 그렇죠』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蘇秦은『같은 사람이 富貴해지면 집안에서까지 대우가 달라지니 남이야 말할것있겠는가. 내가 만약 도성가까이에 田二頃만 있었다면 그것에 만족해서 六國宰相은 안됐을텐데…』하면서 千金을 친족과 친구에게 나눠줬다.▼이토록 재화에따라 사람의 값어치가 달라 보이기 때문인지 俗世의 사람들은 돈을 탐내게 마련이다. 처음부터 부유한 집안에 운좋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빈손이었지만 노력과시운으로 억만금을 버는 사람도있다. 가난한집안에 孝子가 태어나고 財閥은 3代가 어렵다고도하니 가정환경을 비관할 필요는 그리 없을 듯하다.▼淸廉潔白해야할 공무원이 혹시 재직중에 재산을 부정스럽게 모으거나 직무와 관계된 기관에 퇴직후 취업을 조건으로 부조리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막으려는 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다. 그간 그윤리위에서 받은 고급공직자들 재산등록결과에 의하면 국회의원 2명만을 뺀 6백42명이 등록을 마쳤다 한다. 과연 정직하게 신고가 되었는지는 알길이 없으나 우선 그등록이 보이지 않는 淨化작용을 할것만은 믿어도 좋을것 같다.▼또 영리 사기업체와 관련이있는 공직자의 퇴직후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은 재무부등 1백8개, 직위는 1천4백여,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 기관은 법제처이하 57개로 규정 됐다고 한다. 뱃속편하게 근무할 사람과 남의 눈총을 받으며 일해야할 사람이 나눠진것 같기도하다. 하나 모름지기 공직자는 깨끗하면 그만이다. 洗心·淨心·正心에 전력하려 할진대, 거리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마음과 신의 평안을 얻는 길이라 하겠다.

불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우리고유문화를보존하는신문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 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영 숙
보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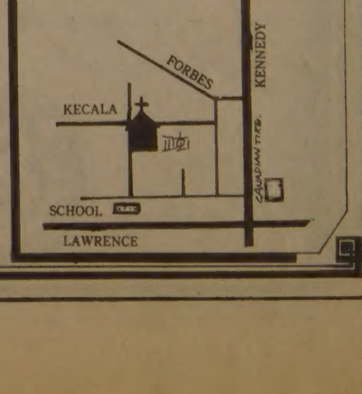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소망은 오직 예수

부활절대부흥 성회

□강사 · 고원용 목사
□일시 : 1983년 4월6일(수)
7일(목)
8일(금)
오후7시30분
9일(토) 새벽기도 5시30분
성경공부 10시30분
오후 2시
저녁집회 7시30분
□장소 · 토론토소망교회 35 KECALA RD. SCAR. ☎ 752-9727, 752-9860

고원용 목사
학 력 : 숭대 철학과, 장로회신학대학, 미국 훌러신학교 선교학 석사및 박사학위과정 이수
경 력 : 한국에서 15년간 장로교회 시무, 현재 미국 밸리제1장로교회 담임 국제I.M.A. 선교회 국제 총무



이에 撤軍협상 最後통첩

레바논、來2일을 최종기한으로

"否定的이면 새로운 對應"

【베이루트UPI AP=聯合】레바논은 23일 이스라엘에 대해 오는 4월2일을『최종기한』으로제시, 이기간내에 종래의 입장을 변경, 3만명의 레바논주둔 이스라엘軍철수문제 타결을위한 궁극적 자세를보이도록 촉구했다고 국영 베이루트방송이 보도했다.

이방송은 정부소식통을 인용, 레바논정부의 입장은『확고』하며 더이상의 철군협상을 용인치않을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은 이스라엘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경우 레바논은 레이건美대통령의 제의범위내에서 다른대안을 제시할것이라고 경고했다.

레바논관리들은 레바논철군협상을 타결시키려는 미국측제안에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부정적」이며 따라서 레바논정부는 이스라엘이 철군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주장했다.

레바논정부의 이같은 對이스라엘기한부통고는 필립·하비브美中東특사가 제마엘 레바논대통령과 회담, 철군협상 타결을 위한 美측제의에 대한 이스라엘입장을 협의한데 뒤이어 나온 것이다.

레바논측이 밝힌 최종기한은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상에 대한 요르단참석여부를 협의하기 위한 후세인 요르단국왕과 야세르·아라파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의장과의 회담일정과 우연히 일치하고 있다.

◇레바논의「팀 스피리트」 다국적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레바논에 파견된 美해병대와 프랑스軍이 23일 실시된 합동기동훈련에서 베이루트남부해안에 상륙하여 전투태세를 취하고있다。【베이루트23日AP電送=聯合】

美核전략 變遷

무차별報復서 우주消滅 작전

23일 발표된 레이건구상은 소련의 핵선제공격을 받은후 비로소 제2격의 대량핵보복을 가하는 미국의 소극적인 核저지전략에서 한단계 높여 공격적방어를 하기로 방향을 고쳐잡았음을 보여주고있다. 소련의 핵선제공격을 앉아서 받아들이지않고 표적을 강타하기전에 핵미사일자체를 파괴할수있는 超兵器를 개발하겠다고 천명한 레이건의 새 방위전략은 전장을 지상에서 우주공간으로 바꾼다는 점에서 지금껏 공상소설에 주로 다루어진 전쟁의 構圖를 밟고있다.

미국의 핵전략은 지난30년간 몇단계의 변천과정을 거쳐왔다. 카터행정부가 들어서기이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오랜 핵전략개념은 무차별대량보복전략이었다.

만약 소련이 인류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핵선제공격을 가해오면 미국도 소련의 각도시와 공장에대해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핵보복공격을 하겠다는 입장을 미국은 견지해왔다. 그때까지 미국은 이러한 무차별 대량보복공격만이 소련의 핵공격을 저지하는 최상의 방법으로 생각했다.

카터대통령은 이당시 미국의 對蘇핵전략을 종래의 大量보복방식으로부터 후퇴, 특수상황에서 소련의 주요전략목표물에 선별적인 제한핵반격을 가하는 유연선별대응전략으로 대폭수정했다. 이전략은 무차별 전면파괴를 극력 피하되 대규모전면핵전쟁과 비효율적인 재래식전쟁의 실속없는 양자택일을 지양한 중간형태의 限定전술핵전쟁의 가능성을 산정한것이기도 했다.

이에대해 선제핵공격을 위해 소련기지를 떠난 ICBM(대륙간탄도탄)이 미국과 동맹국표적에 떨어지기전에 해상상공이나 무인지역상공에서 이를 요격파괴함으로써 인명을 보호하자는 것이 새로운 레이건 전략의 골격이다.

레이건의 새방어전략은 고도의 초병기 체제를 전제로 하고있다. 舊ABM(요격탄도미사일) 체제는 ICBM이 목표물상공에 날아올때 그조정지역에서 미리 파괴함으로써 방사능 낙진이 자국영토에 떨어지기때문에 자국의 위험은 면할길이 없게된다. 그러나 신체제는 ICBM을 무인지역 또는 해상상공에서 요격, 파괴함으로써 자국에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고있어 새핵전략은 초고도 정밀 ABM체제구축을 요구하고있다. 구체제가 지상에서 발사되는 미사일로서 적의 미사일을 파괴하는 이열치열형이라면 신체제는 인공위성의 공중기지에서 광선을 쏘아 날아가는 적의 미사일을 내려다보면서 요격하는 고도기술을 바탕으로한 무기체제이다.

미국과 소련은 지난 72년 요격탄도미사일(ABM)배치금지조약을 체결, 이조약이 현재 발효중이다. 이조약 체결에 앞서 미국은 케네디 행정부때부터 ABM의 개발을 시작했으며 소련은 모스크바 레닌그라드주변지역에 60기정도의 ABM을 배치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약이 발효중에 있지만 미국의 방위전략수정은 군비경쟁의 양상을 바꾸어 놓을 것으로 보인다. 우주무기개발경쟁시대가 예고되고있다. 【朴英鎭기자】

社說

核戰略 선회와 軍縮

—레이건의「超兵器體制」선언 底意

제네바에서 열리고있는 美蘇의 유럽中距離 核戰力감축협상이 오는 28일 휴회될 예정이다. 레이건 미국대통령은 이 제네바협상휴회를 닷새 앞두고 어제 미국과 西方세계安保문제에 관해 重大연설을 했다.

주로 소련을 겨냥한 이 연설에서 레이건대통령은 우주시대의 超兵器를 개발, 공격해오는 적의 核미사일을 도중에서 파괴할수있는 미사일 요격체제(ABM)설치에 착수할 방침을 밝혔다.

우리는 레이건대통령이 말한「超兵器에 의한 미사일요격체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게된다. 소련은 이미 70년대초께 모스크바일원에 미사일요격망을 설치했으나, 미국은 그런 요격망이 공격미사일의 파괴에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한데다 그 체제 구축에 막대한 경비가 든다는 이유로 개발하지 않았었다.

이번 레이건대통령이 밝힌 미사일요격망 구축을 위한 우주시대의 超兵器는 70년대에 거론된 요격체제와는 차원이 다른 무기체제를 뜻하는것으로 보여 진다. 구체적으로는 아직 알길이 없으나 우주시대의 미사일요격체제는 미사일(地上발사대)에서 우주및 地上배치레이저光線에 걸친 체제라고 레이건대통령이 어렴풋이 시사하였다.

미행정부관리들은 앞으로 수개월내에 超兵器체제개발을위한 특별연구계획을 마련하게 될것이라고한다. 그에따라 한가지 분명한 것은 그 超현대식미사일요격체제에 막대한 경비가 소요될것이라는 점이다.

●한데 대체로 美蘇간의 核戰力을 포함한 군사력이 비등하다고 보는 民主黨측은 엄청난 경비가 들 그미사일요격체제구축안에 반대할것이 틀림없다. 民主黨은 84회계연도 2천4백50억달러 군사예산중 93억달러 삭감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시점에서의 美蘇간 核무기 개발및 배치의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참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레이건대통령이 超兵器미사일 요격체제 개발구상을 들고나온것은 제네바군축협상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있는 소련을 협상에 응해오도록 하기위한 압력방편으로 우선 분석할수 있겠다.

레이건대통령은 금년말까지 5백72基의 퍼싱Ⅱ신형 중거리미사일과 크루즈미사일을 서구5개국에 배치키로 나토국가들이 합의한데서 소련을 제네바군축협상테이블로 나오게 했다고 어제 연설에서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막대한 경비가드는 미사일요격체제 개발구상을 밝힘으로써 군축협상에 무성의한 소련이 그가제의한 (81년)유럽에서의「零의 선택안」에 접근해오게 만들것이라고 레이건은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이「零의 선택안」이나 美·나토간에 거론중이며 곧 제안될 그 중간적 해결방안인 잠정안에 마저 소련이 응해 오지 않을 경우, 레이건대통령구상에 따른 超兵器의 미사일요격망 구축은 착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 超兵器체제 개발은 소련의 선제공격이 있을 경우 공격핵무기로 大量보복한다는 종래의 美核방위전략을 크게 바꾸는 것이 된다. 그 요격체제구축 계획이 실현단계로 들어서면 美蘇간의 군비경쟁은 그야말로 본격적「軍擴」으로 치닫게 될 것 같다. 이런 果에서 레이건의 연설은 유럽중거리 核戰力감축협상의 타결을 겨냥한 超강경카드로 평가되고 또한 작용할지 모른다.

소련은 한국, 일본, 中共을 사정권에 두는 SS20중거리미사일 1백10기를 아시아지역에다 배치해 두고있다. 제네바 군축협상에 우리의 각별한 관심이 기울어 지는것도 이때문이다. 어떠한 방안으로든지 美蘇는 暫定案의 타결을 통해「零의 선택안」으로 접근해 가기를 촉구해 마지 않는다.

어린이들의「外製病」

—어른부터 反省하고 放任말아야

어린이를 가리켜「내일을 창조하는 어른이 될 世代」라고 지칭하기는 쉬우나, 요즈음 우리나라의「兒童文化」와 그 消費環境에는 방심못할 문제점이 폭넓게 부각되는 느낌이다.

작금에 급속히 만연된 편향으로 자주 눈에 띄는것 중에는 들뜬「外製病」풍조가 유난히 지적된다. 최근의 수입자유화 조치이후 外製학용품이 범람하는데 따라 그 愛用을 뽐내려는「展示癖」경쟁이 발호하게된 것인데, 이는 어른들의「오픈세 心理」영향에 못지않게 童心을 몹시 멍들게 하는것으로 보여진다.

서울 어느 國校 6년생의 경우 반수 이상의 어린이들이 外製지우개를 사용하며 그들이 선물로 주고 받는 生日카드도 거의 外製로 쓸린다고 한다. 문방구점과 특히「선물의집」을 찾는 국민학교 어린이들이 지갑이나 샤프마저 外製選好로 기우는가하면, 어떤 地方도시에서는 만년필을 사용하는 초·중·고생의 23%가 外製를 지니고 있다는소식이다(한국일보 23일자 11면보도). 이대로라면 멀지 않아「外製病」이 경쟁적으로 전염되어 兒童文化전반을 휩쓸게 될까 걱정이다.

그간 적잖은 어린이들사이에서「타잔놀이」나 만화흉내,「ET놀이」등이 성행 되었으며 이에 부수되는 불상사도 드물지 않게 보도된바 있었다. 하나 外製選好의 팽배로 말하면 國產品愛用에 관한 학교교육을 무색케한다는 편향이상의것을 염려케 한다. 창조적인 主體意識을 부지불식간에 좀먹게하고 나아가서 구사대적인「自卑心理」와「崇外思想」을 은연중 온양시킬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의 兒童文化를 병들게하는 그같은「外製選好病」은 고질적으로 合成化되기 전에 속히 교정되어야 할것으로 믿는다. 학교에서 학용품위 조사도 勵行되어야 하겠지만 그 보다도 어른들의 外製選好경향이 省察되어 마땅 하다.

또「輸入自由化 조치풍조」의 再調整과더불어 兒童文化를 에워싼 消費環境을 淨化하는 政策的配慮가 아쉽다 할것이다. 국내메이커들이 외제보다 쓸모 있는 국산용품을 생산·유통시켜야 할 대목도 잊어선 안된다.

일찌기 유엔總會는 1959년 11월에 채택한「兒童의 權利宣言」에서「人類는 兒童에게 最良의것을 물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근본취지는 兒童의 진정한 人權보호를 위해 보다 많은 社會的·敎育的관심을 돌리는 과정에서 자라나는 世代의 生活環境을 맑게 유지해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되었던 것이다. 확언하면 어린이들의「個性과 自發性을 존중」한다는 허울좋은 표방아래 個人主義的 放任을 정당화할수 없다는 뜻이다.

그점, 불지각한 일부 商業主義가 어린이들의 好奇心을 자극하면서 저속한 사치와 흥미를 조장하고 있다는 현실은 결코 방치될바 아니다. 한편「輸入自由化」같은 조치에 사로잡혀 大局的·敎育的配慮를 소홀히하는 행정을 노출시켰다면 이는 지체없이 시정되어 마땅하리라고 본다.

본시「兒童文化」란 自然發生 또는 自由放任의 所産인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린이들의 生活을 감싸고, 이들의 成長에 意識的으로 작용하며 영향을 미치도록 배려하는「계획적文化」란데 本領이 있다. 자라나는 世代들의 生活環境에 대한 올바른 敎育的配慮와 選擇的指導를 거듭 강조해 마지않는다.

中·蘇 전문가 交流

副外相회담서 합의…農·科技부문

【北京燭=聯】중공과 蘇聯은 지난60년대이래 중단돼왔던 양국간의 농업·과학·기술부문 전문가 교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北京에있는 東유럽소식통들이 23일 밝혔다.

소식통들은 이같은 합의가 최근 모스크바에서 열린 中·蘇관계정상화를 위한 양국간의 副外相회담에서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이같은 합의에 따라 소련은 中共에 기술자들을 파견, 지난50년대에 소련이 공급한 각종설비및 시설들의 개조작업을 돕게될것이며 中共은 소련에 농업전문가들을 파견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그러나 이번에 합의된 기술자교류가 어느정도의 규모인지는 알수없다고 덧붙였다.

蘇聯은 지난60년대 中·蘇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中共에 파견했던 기술자들을 모두소환한후 아직까지 中共에 기술자들을 보내지않고있다.

母國폴란드 再訪問 敎皇 來6월16일에

【바르샤바ANSA=聯合】교황 요한·바오로2세가 오는 6월16일~22일까지 그의 모국 폴란드를 다시 방문할 것이라고 국영 폴란드통신(PAP)이 23일 공식발표했다.

이통신은 폴란드정부 당국과 폴란드 주교회의 의장인 요세프·글렘프 추기경이 마련한 공식방문일정을 동시에 발표했다.

니카라과 內戰상태 突入

【마나과·로마UPI AP=聯】니카라과는 집권좌익 산디니스트정부군과 온두라스군의 지원을 받는 우익망명게릴라간에 최근 재개된「본격적인 전투」로 내란상태에 빠져든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이와 때를 같이해 산디니스트정부는 온두라스가 美지원하에 니카라과대공세를 준비하고있다고 주장했으며 유엔安保理도 니카라과사태를 다룰 긴급회의소집 움직임을 보이는등 中美에 새로운 긴장이 감돌기 시작했다.

西獨 새聯政組閣 外相에 겐셔유임

【본UPI AP=聯合】西獨총선에서 승리한 헬무트·콜수상은 그동안 진통을 겪어온 3대 우익정당간의 정책조정을 마무리짓고 23일 前행정부의 각료를 거의 그대로 유임시키는 새 연립정부를 구성, 각료 명단을 발표했다.

새연립정부의 각료 16명중 14명이 유임됐으며 이들중 8명은 基民黨이, 5명은 基社黨이, 그리고 나머지 3명은 自民黨이 각각 차지하여 自民黨출신 각료가 1명줄고 基社黨출신 각료가 1명늘어났다.

비자없이 두달滯留 印尼, 한국등26개국

【자카르타(인타르)=聯】인도네시아는 4월1일부터 한국등 26개국여행자들에게 비자없이 2개월동안 인도네시아에 체류할수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인도네시아정부관리들이 22일 말했다.

이관리들은 그러한 정책이 석유수출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게 됨에 따라 이를 상쇄하기 위해 1만3천개나 되는 인도네시아의 섬들에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8개地方廳 來1日 여권발급업무 開始

외무부는 여권발급 업무를 당초 예정대로 오는 4월1일부터 釜山과 大邱직할시및 忠南·北, 全南·北, 江原, 濟州道등 8개지방청에 위임하고 慶南의 경우에는 道廳이 昌原으로 移轉된후인 7월1일부터 여권발급업무를 맡도록할 방침이다.

외무부는 또 거주지이외의 他지방청에서도 여권을 신청할수 있도록한다는 당초의 계획을 변경,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거주지 관할 지방청이나 외무부 여권과에만 서류를 접수시키도록 제한키로했다.

외무부가 이처럼 여권발급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청이 그 관할주민에 한해 여권을 발급할수있도록 규제한것은 해외출국자격이 없는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他지방청에서 여권을 발급받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한 조치인것으로 보인다.

◇차에 올라타는 6발 로보트 美캘리포니아州 오디티스社가 개발한 원격조종 로보트 ODEX 1호. 이로보트는 6개의 다리를 이용, 어떠한 지형도 횡단할수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군사·농업·임업용목적으로 사용될수 있다고. 오디티스社의 기술진인 스티브·바슈리트씨가 원격조종을 통해 이로보트를 픽업트럭에 올려놓고있다.【로스앤젤레스22日AP電送=聯合】

海外토픽

로보트가 議會청문회 證言

한개의 가느다란 팔과 두개의 음파탐지 눈들을 가진 50㎝키의 회백색 금속로보트가 지난주 열린 미국의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두했다.

히어로(英雄)라는 이로보트는 음성합성기의 스위치가 연결되지 않아 말은 많이 하지 않았으나 그의 출두는 산업계전문가들이 말하는 이른바 고조되고 있는 일부 미노동시장에서의 문제성을 잘 대변해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전세계에서 사용중인 고성능 로보트는 일본에 1만4천대, 미국에 5천여대등 약2만2천대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80년대말까지는 미국에서만도 15만대의 로보트가 공장에서 작업하게 될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카네기·멜론대학의 로버트·에이레스교수는 따라서 금세기까지 미국에는 로보트에게 일자리를 뺏긴사람이 수천명밖에 안되지만 금세기말까지는 3백80만정도가 그렇게될지 모른다고 전망했다.

에이레스 교수는 이어 18세기 영국방직노동자들의 러다이트운동과 유사한 산업폭동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면서 그렇게될경우 노동자·고용자·국가가 모두 피해를 입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卯】

업체에 뇌물강요 蘇聯검사 총살형

『상어』라는 별명을 가진 소련의 한공안검사가 뇌물강요혐의로 총살형에 처해졌다고 소련키르기즈아공화국에서 모스크바에 들어온 보도들이 전했다.【卯】

人事異動

每日經濟新聞社 ▲理事待遇 社長室勤務 朴在權 ▲理事待遇 論說主幹 鄭泰成 ▲編輯局長 金相禧 ▲廣告局長 白仁鎬 ▲事業局長 崔仁洙 ▲管理局長 劉光弼 ▲工務局長 韓秉傑 ▲販賣局長 宋德萬 ▲編輯局次長待遇駐美特派員 邊道殷 ▲論說委員 金光三 ▲副局長待遇 社會生活部長 趙長鎬 ▲副局長待遇 廣告局勤務 徐龍蓮 ▲文化體育部長 崔仁鳳 ▲調査部長 尹錫雄 ▲校正部長 金南振 (4월1일字)

內外動靜

▲金滿堤씨 (韓美銀行長) 人事次

政局往來

◆우리의모습을 본대로만 전해달라

全斗煥대통령은 24일 하오 제7차 太平洋지역 육군管理세미나에 참석한 각국대표들과 환담을 나누며『이 세미나가 각국간의 군사지식과 정보를 교환하는 전통을 확립해 세계평화의 유지를 위한 힘의 源泉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

全대통령은 또『여러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평화를 위해 땀흘려 일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므로 歸國하면 貴國국민들에게 이를 소개해 달라』면서『더잘 선전할 필요도 없이 사실보다 못하게 전할 필요도 없으며 본대로만 알려달라』고 말해 잠시 웃음이 일기도.

全대통령은 이어『오늘날 지구는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로「地球村」이란 말이 실감날 정도로 좁아졌다』면서 太平洋지역의 평화와 번영을위해 서로 협력할것을 강조.

◆"한국의 肖像畵는 매우寫實的"

訪韓3일째를 맞은 말레이지아의 아마드·샤왕은 24일 상오 왕비와 함께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 약1시간동안 전시장을 둘러보며 한국의 문화유물에 감탄사를 연발.

아마드·샤왕은 특히 전시된 肖像畵를 주의깊게 관람하며『한국의 초상화는 매우 寫實的이고 개성이 강한것같다』고 寸評.

아마드·샤왕은 또 한국문화가 일본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鄭良謨 학예연구실장의 설명에『전에 들은 일이있다』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이어 이날하오 水原에 있는 三星電子공장을 시찰한 아마드·샤왕은 각종 전자제품과 공정을 살피며 제품의 우수성에 놀라움을 표시.

아마드·샤왕은 鄭在恩사장의 안내를 받아 회사소개필름을 관람한뒤 제품전시실을 둘러보며『쿠킹텔리비전』앞에 걸음을 멈추고『요리를하면서 TV畫面을 동시에볼수있다』는 설명에『대단히편리하겠다』고 말한뒤『이정도의 제품도 만드느냐. 市販도 되느냐』고 묻기도.【水原=河長春기자】

◆商工委空轉비난들자 對策에腐心

油價인하문제를 다루려던 국회商工委의 空轉에대해『직무遺棄』라는 비난이높자 與野는 각기수습對策에 苦心.

陳懿鍾民正黨대표는 24일 商工委재소집또는 국회經科·商工委연석회의전망에대해『이를 회피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망대회가 임박한데다 뒤이어 임시국회가 열리게된만큼 당장은 어렵지않겠느냐』면서 4월국회에서 油價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것임을 示唆.

"油價문제 적당 처리하면 總選때 불리하게 작용 할것…"

이에앞서 柳致松民韓黨총재는 23일저녁 청와대 迎賓館에서있은 말레이지아國王을 위한 리셉션자리에서 金俊成부총리에게『국회에 나오기가 그렇게 어려운가』고 유감의 뜻을 전했다는 後聞.

한편 民韓黨의 林鍾基총무는『그동안 기름값이 오를때마다 정부·기업·家計가 고통을 分擔해온만큼 이번 原油價인하혜택은 정의사회구현을위해 국민각계각층에게 均霑되도록해야할것』이라면서 4월국회전에 經科·商工연석회의를 적극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여당이『油價인하문제를 적당히 처리할경우 오는 12代總選때 어용사기사건과 비슷한 이슈로 불리하게 작용할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기까지.

◆民正、黨顧問의기능條項삭제관심

民正黨은 새로 마련한 黨憲개정안에서 현행黨憲의 黨務지도권, 회의출석권등 黨고문의 기능조항을 삭제, 이에따라 李載瀅전대표위원이 상임고문에 임명될 경우 그 역할과 기능에 관심이 집중.

黨憲개정안은『黨고문은 총재의 요청에 따라 黨務를 지도하고 각종 회의에 출석, 의견을 개진할수 있다』는 현행 규정을 삭제한 대신『黨務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상임고문 또는 고문을 둘수있다』는 조항만을 두고있다.

고문의 黨務지도권과 회의출석권을 폐지한데 대해 한관계자는『고문의 역할을 특별하게 규정할 필요가 없기때문』이라고 그이유를 설명.

◆단체여행은 旅券課서 직접심사

외무부는 不要不急한 해외여행을 억제한다는 방침에따라 오는4월부터 地方廳으로 위임되는 旅券발급업무중 단체여행자만은 외무부여권과에서 직접 서류심사를 하기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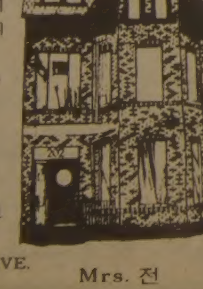
한관계자는 24일『지난해의 경험에 비추어 문화여권을신청하는 단체여행자의 상당수는 여행목적이 不分明하거나 관광목적으로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단체여행자의 규정을 5명이상으로할지 10명이상으로 할지는 아직 未定』이라고 설명.

이 관계자는 또 지방주민들이 거주지 관할지방청이나 외무부여권과에서만 여권을 신청할수 있도록 제한한데대해『거주지 지방청에서 신청했다가 퇴자를맞은뒤 서류심사가 허술한 他지방청에 다시 서류를 접수시키는 사례가 예상되기때문』이라고.

털코-트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외 각종 털제품 3000점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 스파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 보험 세탁 스토레이지 (차게 보관), 수리 추레이드인(Trade-ins)
※ 밍크외 각종 털코-트, 자켓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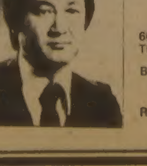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 화, 수, 토
9:00~9:00 목, 금
202+208 SPADINA AVE.
☎ 363-6077
Mrs. 전

어디에도 비교될수없는
저렴한 가격과
아담한 분위기속에서
고객을 맞이하고있아오니
한번쯤 들려보십시요!
술면허를 취득했읍니다.
ㅁ맥주 1불. ㅁ청종·와인등

오 행 백 반	$2.95
탕 국 수	$2.95
우 동	$2.95
짜 장 면	$2.95
김 밥	$2.50
물 만 두	$2.95
골 밥	$2.95
비 빔 밥	$2.95
불 백	$4.95
갈 비 백	$4.95
생선찌게백	$3.75
두부찌게백	$3.25
만 두 국	$2.95
떡 국	$2.95
떡 만 두 국	$2.95
된장찌게백	$3.25
순두부찌게백	$3.25
통 닭	$4.95
1/2 닭	$2.95

☎537-0432
내고향 통닭집
7DAYS A WEEK. 11시~새벽1시
658½ BLOOR ST. W.

이대환 不動產
★드라이브 인
▲도넛숍 : 주매상 $8,500, 렌트 $2,900, 아스킹 $320,000
▲도넛숍 : 주매상 $9,500, 렌트 $3,500, 아스킹 $319,000
▲햄버거숍 : 주매상 $12,000, 렌트 $3,500, 아스킹 $350,000
★아담한 Take Out 식당(6일)
주매상 $6,500, 렌트 $500, 아스킹 $160,000
★Mall안에 있는 Gift숍(크리스탈전문)
년수입 $500,000, 아스킹 $149,000
★Variety Store
주매상 $11,000, 리스 5+5년가능, 아스킹 $39,000
★Variety Store
주매상 $15,000, 리스 2+3+5, 아스킹 $239,000



세일즈맨 신영하
(R) 423-3114
609 BLOOR ST. WEST
TORONTO, ONTARIO
B) 535-1251
535-1260
R) 536-4250

戰場을 地上서 宇宙로

예측못한 「超兵器」 개발… 레이건發表의 波長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중에서 무력화시킬수있는 새로운 무기의 연구 개발을 지시하면서 레이건대통령자신도 그실현에는 장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연설서두에서 분명히 레이건대통령은 이결정이 核戰의 위협으로부터 평화를 지킬수있는 희망을 21세기의 우리자손들에게 줄수있는것이라고말했다.

그러나 그내용은 가공할만한것이었다. 그것은 레이건의 연설이 예고됐던시점부터 民主黨다수의 하원이 그의 국방예산 요구액을 깎을것을 겨냥한 또다른「修辭用단환」일것이라는 추측들이 나돌았으나 정작 이날 연설의 핵심인 超兵器개발은 전혀 예측되지못했기때문에 그 충격은 어느발표보다 컸다.

서두에서「21세기의 희망」을 말한 레이건은 거의 끝부분에서『지금까지 우리는 전쟁억지전략이란 맞으면 보복한다는 개념위에 기초를 두어왔지만 보다 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우리의 땅이나 우방국에 떨어지기전에 파괴해버릴수는 없을것인가』라는 발두식으로 말을 꺼냈다.

레이건은 自答하듯『방법이있다』고 말하고 그간 보좌관, 합참요원, 수많은 과학자들과의 주의깊은 의논끝에 이런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레이건의 연설론는 그것이 우주무기가될지 지상배치무기가될지 아직 분명치는 않다.

그의 文脈에서 분명한것은 어떤핵무기도 지상에서 폭발하기전에 공중에서 완전히 무력화시킨다는 것이다.

레이건은 이런무기의 연구개발로서 核무기에 의한 위협을 아예없애는 궁극의 목표를 달성할것이며 대상이되는 무기자체를 없애는 것이 군축의 첩경이라고까지 강경한 어조로말했다.

여기에 덧붙인것이 이번 결정이 미국이 군사적우위나 정치적이득을 추구하려는것이 아니고 핵전쟁을 없애는길을 모색하려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었다.

과학자들과 의논했다지만 이에관한 연구가 얼마나 진척됐는지에는 언급이 전혀없다.

다만 이러한 對彈道미사일무기체제연구에 이미 10억달러가 소요됐다는 행정부관계자들의 말로 미루어 이에 관한연구는 이미 상당수준에 와있는 것으로보여진다.

관계자들은 과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더전진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의 증액을요구하게 될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레이건의연구지시는 그자체의 중요성이 결코 지나칠수 없는것이긴 하지만 미국내에서는 불가피하게 레이건의 軍備증강을 저지하려는 의회의 무드, 국민의 여론을 크게 의식한것이라는 분석이 내려지고 있다.

실제하원본회의는 23일밤 레이건의 10% 국방비증액요구를 4%선으로 줄이고 3백억달러의 赤字 3백30억달러의 사회보장용 국내지출의 증액등 모두 8천6백35억달러규모의 민주당예산안을 2백29대 1백96으로 통과시켰다.

이것은 레이건이 지난2년간 공화당少數의 하원에서 보수연합을 통해 그의 예산안을 원활히 통과시켜왔던것과는 커다란 대조를 이루는 첫패배이며 민주당측은 「드디어 레이건에게 복수했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10억弗소요… 研究수준 크게진척
蘇、對應착수에 우려표시

국방비증액이 특징으로 돼있는 레이건의 예산안은 공화당이 多數인 상원에서도 무난한 통과가 어려울만큼 여론은 레이건의 예산, 특히 국방예산증가에 회의적이다.

이때문에 행정부는 그간 수많은 의회증언을 통해 군사비예산을 강조해왔고 이날도 레이건은 「믿지않는국민과 의회를 설득하기위해 상당수 보좌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제까지 기밀로 돼있던 쿠바 니카라과 그레나다의 소련 정보수집시설, 활주로, 신장비의 항공사진을 공개하면서까지 소련의 위협이 어느정도인가를 설명했다」

물론 美蘇간 전력비교도 상세히 설명했다.

이날 연설의 반응은 우선 가공할 무기개발지시에 대한 충격이다.

이날 발표후 백악관 한관리는 레이건연설은 소련의 위협이 진정 어떤것인가를 알리고 동시에 守勢에 몰리고있는 국방예산논쟁에서 정치적공세를 하기위한것이라고 솔직히 그의도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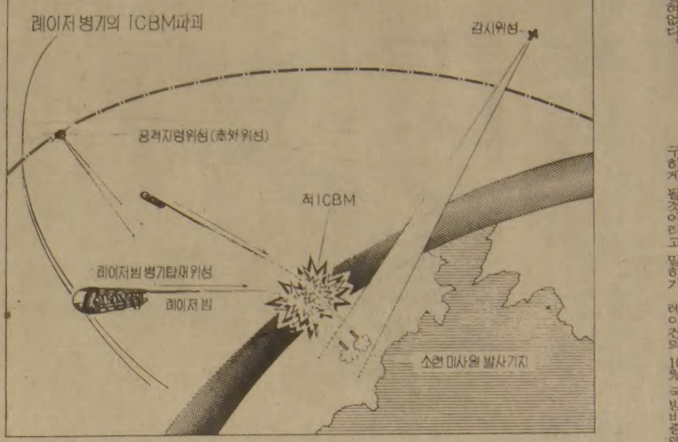
그러나 토머스·오닐하원의장과 하원외교위원회의 버트·버드의원은 各각공동성명을 내고 레이건의연설은 미국의 安保보다 국방예산을 겨냥한것이라고 비난하고 중요 TV방송에 대해 민주당측에도 이에답변할수있는 시간을 할애해줄것을 요청했다.

수주일간 숙의끝에 공개된 이날발표는 이런 미국내 정치상황과는 별도로 그자체가 커다란 관심의대상이 될것같다.

그것은 對彈道미사일무기 체제개발에 지금까지의 무기수준을 완전히 한단계 넘는것이고 그야말로 레이건의 말처럼 인류역사의진로를 바꿀수있는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심들과 함께 그것이 對蘇강경책을 고수해오고있는 레이건에의해 소련을 겨냥해서 발표되었다는점에서 이에 대응하려는 앞으로의 소련의 반응등에 대해 또한 커다란 우려를 표하는 견해들도 있다.

【워싱턴=李文熙 특파원】



베일속의 超兵器
레이저·超短波무기 사용 假想의 宇宙전쟁 現實로

레이건美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소련의 核미사일을 방어하는 超兵器(Super Weapon)란 과연 무엇인가에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수소탄을발명하고 현재미국의전략무기개발에 적극참여하고있는저명한核물리학자인 에드워드·텔러박사는 지난해10월 미국이 핵무기에 대항하는 경이적인 방어무기를 개발하기직전에있다는 사실을 공개한적이있다.

아직 레이건대통령이 언급한 超兵器방어체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인내용은 베일에 가려있으나 이미 거론되어왔던 레이저및 粒子광선무기를 이용한 우주전쟁체제를 의미한것이 거의 틀림없다.

지난달 공개된 국방성비밀「85~89년국방지침서」가 레이저무기개발의 중요성을 지적, 지상발사뿐아니라 우주공간에 배치되는 레이저무기체제수립을 강조한것과우주군사령부를신설한다는 계획등으로 미뤄보아 이미 미국은 레이저광선무기개발에 상당한 진전을 이룩한것이확실하다.

즉 레이건이밝힌 새전략체제란 미래무기의 총아로 지금까지 이론적 차원에서 구상되어왔던 粒子광선무기, 또는 고성능초단파무기등이 사용되는 우주전쟁체제가 현실적이고 실전 전략으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레이저광선무기는 실험된바는 있으나 아직 原型은 제조되지 않은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빠르면 수년안에 늦어도 금세기말까지는 실전배치가 완료될 것으로 군사전문가들은 확신하고있다.

다시말해 공상과학영화「스타·워즈(별들의 전쟁)」에서 흥미롭게보았던 假想우주전쟁이 현실로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레이저및 素粒子광선무기를 위성 우주선 우주기지등에 배치, 적으로부터 발사되어 날아오는 核미사일 또는 전투기를 지상에 떨어져 폭발되기전에 쏘아 박살내는 전략이다. 또한 이광선무기들은 적국의 위성및 우주기지를 공격, 무력화시키고 지상목표도 완파하는데도 무서운 위력을 보일 것이다.

결국 레이저무기가 실전에 배치될경우 현재 美蘇가 논란을벌이고있는 核탄두보유량은 별의미가 없게 된다.

흔히 레이저및 粒子광선무기는 무기발달과정의 최종단계로 일컬어질 정도로 위력은 경이롭지만 실제로 기본원리는 간단하다.

광선무기는 높은 에너지를 가진 레이저·빔이나 陽子·電子·中性子등 素粒子를 光速에가까운 속도로 쏘아보내면 목표물에 닿자마자 보유한 高熱(이론상으로는 10억분의 1초에 섭씨1억도)이 발생, 미사일 강철등 무엇이든 녹여 휘발시켜버리는 것이다. 또한 명중된후에도 강력한 電磁場이 생겨나 내부전자부품을 파괴하는 공포의 무기이다. 粒子빔무기는 電子·陽子·中性子를 光速으로 쏘아보내는것인데 中性子의 경우 中性子彈의 파괴방식과 똑같다.

우주기지에서 광선무기를 이용해 지상 미사일기지를 공격할경우 2백50초동안에 5백基의 미사일을 파괴할수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미사일 1基가 발사되는데 소요되는시간이 2백50초인것을 감안해볼때 대부분의 미사일은 선제공격을 할경우 발사직후 요격된다는 결론이다.

또한 레이저광선은 1초에 29만7천6백㎞를 달리므로 우주기지에서 지상까지의 공격시간은 그야말로 순간이다. 따라서 광선살인무기들이 실전에 배치된후 만약 美蘇가 우주전쟁을 벌인다면 삽시간에 결판이 나게 되어있다.

즉 고도의 전자기술을 응용한 감시위성에서 적의 미사일 공격을 탐지하는순간 전쟁은 끝나는것이다.

누가 먼저 광선무기를개발해 실전에 배치하느냐에따라 美蘇간의 군사력우위는 쉽게 가늠될것이다.

【崔海雲기자】

메아리

長壽社會

中共의 貴州省에있는 梵淨山에 1백세 이상자가 12명이나 사는 長壽村이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마을이 자연림으로 둘러싸인 高山地帶라는것, 이들이 모두 농민들로서 아직도 노동을 하고있다는 점들이 지금까지 알려진 長壽의 조건에 맞는다.

전세계에서 長壽村으로 유명한곳은 세군데 있다. 첫째 소련의 코카서스山脈인 黑海연안의 아브하시아 自治共和國. 인구의 2·6%가 95세이상이다. 다음은 에쿠도르의 빌카밤바와 파키스탄 南部 국경지방의 훈자. 빌카밤바는 인구10만명당 1백세이상자가 3백72명이다. 그러나 이곳은 1978년의 조사결과 아버지, 할아버지의 호적이 자기것으로 된것이 많아 당시 1백40세의 이지밤 최고령자는 실제가 96세인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래도 長壽村임에는 변함없다.

이 세곳에서 長壽의 조건을 類推한 결과 공기좋고 경치가 아름다운 高地일것, 야채·과일·우유제품을 대량 취할것, 스트레스를 없애고 적당한 노동을 할것등 세가지가 나왔다.

이 가운데서도 長生의 연구학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스트레스다. 한마디로 마음이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하지 않고 느긋하게 매일을 지내는것이 가장 좋은 長壽의 비결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한 생명보험회사가 1백세이상자를 대상으로한 조사결과도 사물에 구애되지 않는채 사소한일을 걱정하지않고 사는것이 첫째 조건이었다.

화를 자주 내거나 남을 자꾸 미워하면 10대의 젊은이라도 위궤양에 걸린다. 식생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령 인체에 칼슘 성분이 모자라면 불안해 져서 자기 쪽에서 스트레스를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기때문이다.

누군들 오래 살고싶지 않을까마는 長壽에 대한 극성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대로 남못지 않다. 그러면서도 위의 세가지 조건에 정 반대의 길을 가고있다.

우선 물좋고 공기좋고 경치좋은 시골을 떠나 자꾸 대도시로만 모인다. 로버트·앨런이라는 미국의 의사는 인구 2백만이상의 도시에 사는 사람은 최소한도 2년 減壽한다는 계산법을 내놓았다.

또 우리나라사람들은 長壽의 營養食 대신補身食이나 補藥에만 정신이 팔려있다. 몸에좋다면 뱀쓸개고 뭐고 그저 통째로 삼킨다. 꾸준한 常食의 건강법을 생각하지않고 당장의 即效만 노린다. 한탕主義 심리의 발로다. 長壽에 지름길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長壽를 막는것은 萬人對萬人의 긴장이다. 싸워서 꼭 이겨야 한다는 투쟁 심리다. 이대결이 사회를 삐걱거리게하고 개개인의 스트레스를 낳는다. 허리띠를 풀고 여유 작작하게 살아갈 줄을 모른다. 하루 하루가 노여움과 미움의 세월이다. 그러는 사이 목숨은 한해 한해 짧아져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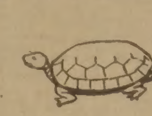
오래오래 살자면 비싼 補藥대신 시골길에 나가앉아 신선한 공기속에 싱싱한 과일이나 씹으며 남과 절대로다투지않을 일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의 애틀라스박사는「大指揮者는 早死없다」는 新說을 1980년에 발표한것이 있다. 미국남성의 평균수명은 68·5세인데 비해 유명한 지휘자 35명의 평균수명은 73·4세였다. 정신적 충족감에다 지휘의 다이내믹한 움직임이 적당한 운동이 되기때문에 오래 산다고 풀이했다.

지휘자뿐이 아니다. 음악연주가들은 대개 長壽한다. 그리고 베르디는「아베마리아」를 85세에 작곡했고 미켈란젤로는 89세로 죽을때까지 조각을 제작했으며「文明史話」로 유명한 듀랜트는 이 大著의 全10권중 5권을 69세에서 89세사이에 썼다.

육체적 노동뿐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해주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맑은 마음이 그 生을 자주 길게 밀고간다. 그정신적 순수성이 長壽를 가져온다.

모두가 長壽를 위해 攝生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는 한결 밝고 맑고 부드러워질 것이다.



金聖佑 <編輯委員>

記者의 눈

消費者의 권리

현대인의 삶은 소비를위한것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먹고입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소비를 해야한다.

특히 사회가 발전하고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각종 소비재도 다양하게 개발됐고 그만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돈을주고 구입한 생활용품을 사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등한히 해왔다.

즉 소비생활에서 생기는 조그만 손해는 쉽게 용인해버리고 사소한문제로 치부하기 일쑤였던것이다.

이런 풍토에서 불량식품, 저질상품, 바가지요금등이 난무하는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었는지도 모른다.

이처럼 소비자가 권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을 회복하는것은 소비자들이 뭉쳐 힘을 키워 메이커와 대결하는길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30여년동안 각종 여성단체에서 손대기 시작한 소비자보호운동은 나름대로 큰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아무런 바탕이나 자체시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정부의 지원을받는 입장이어서 적극적인 소비자보호운동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웠다.

이런 시점에서 남성위주의 소비자보호를 표방하고 나선 한국공익문제연구원등 2개단체의 본격적인활동 개시는 때늦은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활동내용이다. 얼마만큼의 투자와 적극적인 활동으로 명실공히 소비자를위하고 메이커에게 경각심을 줄수있을까가 문제인것이다.

남성위주의 소비자보호단체들은 자체시험시설을 갖추고 공정한 상품의테스트를 통해 불량품을고발하고 소비자들을 회원으로 결성해 집단행동까지도 계획하고있으니 그활동 여하에 따라서는 소비자의권리가 향상될것으로기대된다.

이렇게 될경우 소비자보호운동으로 컬러TV값과 브리태니커사전의 값을 끌어내린 일본의사례도 남의일이 아니게 될것같다.

누구에게도 해악을 미치지 않으면 소비자보호단체는 많으면 많을수록 그이익은 소비자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모든소비자들의 눈길이 모아지고있다.

【朴珍列기자】

클라크씨 病床日誌

<12월>

2일	7시간에 걸친 대수술로 심실을 재비크 7형인공심실로대체
4일	폐에서의 공기누출로 2차수술
7일	심한 발작으로 혼수상태에 빠짐
14일	인공심장 이상으로 세번째 수술
25일	가족들과 조촐한 크리스머스를 보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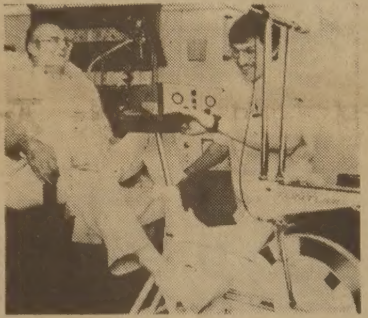
18일	코에서 피가나와 동맥 수술
21일	62번째 생일맞음. 이후 상태회복

<2월>

14일	개인용병실로옮겼으나 2일후 신장과호흡기이상으로 치료
24일	호흡이 곤란했으나 개인용병실로 옮겨졌음. 상태호전. 클라크씨의 퇴원후 생활설계마련

<3월>

21일	고열과신장기능저하
24일	상태악화됨. 인공심장에서 피가 흘러나옴. 1백12일만에사망



◇지난3월21일 수술91번째날을 맞아 인공심장동력장치를 작동해보던생전의 바니·클라크씨.

人類에 한가닥 希望을 남기고…
인공心臟…클라크씨 永眠
死因은 순환기 障碍
血液 손실로 조직 傷해

세계 최초로 인공심장을 영구이식받았던 바니·클라크씨(62)가 23일밤 美유타大병원 병실에서 투병 1백11일17시간53분만에 끝내 숨지고말았다. 지난해 12월2일 하오4시9분 인공심장 이식수술을 받았던 클라크씨는 인류에게 한가닥 희망을 남겨준 채 눈을 감고 만것이다.

병원대변인 존·드완씨는 클라크씨의 주된 사망원인은 「순환기장애」이며 2차적으로 신체기관의 기능이 정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병원부원장 체이스·피터슨박사는 23일밤 클라크씨가 혈액의 손실로 조직손상을입어 괴로와했다고 밝혔다.

피터슨박사는 또 피가 굳었거나(血栓) 폐동맥의 혈관이 수축됐기 때문일 것으로 의사들은 믿고있다고 말했다. 클라크씨의 폐동맥은 인공심장과 폐를 연결하는부분이다. 또 클라크씨의 혈관계는 오줌이 잘 배출되지 않아 항상 긴장상태에 있어 근육경련을 일으켰으며, 또 박테리아의 감염으로 클라크씨는 고통을 받았다는것. 이에 따라 신장의 기능이 정지됐고 폐동맥은 매우 혈압이 높았다.

병원관계자들은 클라크씨의 사망원인이 인공심장 때문이 아니고 여기에 연결된 부위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드완대변인은 『클라크씨는 인류에게 커다란 공헌을 했다. 클라크씨의 희생으로 얻어진 새로운 지식은 우리에게 밝은 앞날을 기약할수 있을 것』이라며 슬퍼했다.

시애틀 근교에 살아온 전직치과의사인 클라크씨는 불치의 심장병으로 지난해11월 말 곧 수술을 받지않으면 위급한 상태였다.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심장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는 7시간에 걸친 대수술로 썩어가는 심실을 인공심실로 대체했다. 플래스틱펌프를 가슴에 품고 평생동안 살아가야했던 클라크씨는 남은인생을 10㎜짜리 호스로 연결된 1백70㎏의 동력기와 더불어 지내야했다.

클라크씨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희망은 재비크 7형 인공심장. 그러나 의사들은 이 인공심장이 실험용임을 강조했다. 인공심장을 이식받은 뒤에도계속 고통에시달리고 수술을반복해야하며, 결국은 부작용으로 죽고만다는사실을 클라크씨에게 주지시켰다. 그러나 클라크씨는『내몸을 실험대상으로삼아달라』는 비장한각오로 수술에임했다.

클라크씨는 수술후 죽기까지 7번이나중대한 고비를 넘겨야했다. 또4번이나 가슴을 열어젖히는수술을받았다.

수술받은지 16일뒤인 지난해 12월18일부터 조금씩 회복된 클라크씨는 가족들과함께 조용한 크리스머스를 보냈다. 그때 클라크씨는 수술전부터 있었던 신장이상과호흡기질환으로 고통을 받고있었다.

그러나 1월중순경 의사들은 2~3주안에 퇴원할수있을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코에서 출혈이 시작됐고 곧바로 혈액의 응고를 방지하기위해 안티코아귤린제를 투입하고 위장과 코를 튜브로 연결했다. 1월18일 클라크씨는 수술실로 옮겨져 1개의 동맥과 6개의 소동맥을 매주는 수술을 받았다.

클라크씨는 1월21일 62번째 생일을맞아 「재생의기쁨」을 만끽했고 2월14일까지 상태가 매우 좋아져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했다. 의사들은 그가 퇴원한뒤 집에서의 생활계획을 짜기에 바빴었다.

그러나 3월21일이 되면서 클라크씨는 열이 치솟기시작했고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24일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金周彦기자】

張吉山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59)

고된일을 하고나니 밥은입안에서 오래 머물지를 못하였고 고봉으로 먹고나니 모두 오금이 녹적지근하였다. 정만일은 건넌방에서 원태 시동이와 이마를 맞대고 앉아서 비로소 계의 이야기를 꺼내었다.

『본현은 원래 작은고을인데 전지가 비옥하여 대개는 다른곳보다 곡기가 덜한 고장이지요. 뚜렷하게 세간에서 환로에나가 출세했다는 사람도없고 거의가 산간의 농군들입니다. 사념의 시흥이나 연천사는경림이는 그래도 매매행상으로 대처에도 나다니고하여 물정을 알지만, 여기서는 계원이 될만한자가 뚜렷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원태는 만일이의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방법도 있소. 미륵도를 펴나갑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읍내에서 땅 많고 부자인 이철신(李哲信)이를 넘는것이 유리할 겁니다. 나하구 동갑내기인데 명당이라면 환장하지요. 그는 부농이지만 양반 못된 것이 한이라고하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철신이만 우리 패에 든다면 본현의 아전들은 한손에 주무를 수가 있지요. 철신이네 사랑이 바로 그자들이 모여서 한탑도 하고 투전도 노는곳이지요』

『옳, 그런 사람이라면 우선 내가 명당 얘기나 역학 얘기로 인사를 트고나서 여환 스님을 대어 용화향도를 삼으면 되겠군』

원태의 말에 시동이는 일어나려고 하면서 말하였다.

『쇠뿔은 단김에 빼랬다고 지금 가서 만납시다』

『아니야, 정서방이 먼저 언질을 주고나서 내가 못이기는체 찾아보는 것이 낫지』

원태의 의견에 만일이도 찬동하였다.

『예, 원래가 촌 부자라는 것들은 타관 사람들을 잘 믿지 않습니다. 혹시 재물을 탐하여 곡식이라도 축내려고 찌를 쓰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우연히 놀러간듯이 하고서는 산을 잘 보는 이가 있더라고 운을 떼겠습니다. 필시 이가는 현달한 조상이 없어 애가 달아 있는 판이라 선산을 보아 달라고 조를 것입니다. 그때에 대인님이 오셔서 몇마디 하시면 쉽게 마음을 잡을수 있겠지요. 처음에 저는 전혀 소문만 들었지 서로 모르는척 하겠읍니다』

『그게 좋겠군』

『장군사 대법회 때에 영평 사람들도 좀 참례토록 할까요?』

시동이가 물었고 원태는 잠시 생각하였다.

『글쎄…워낙 거리가 멀고 오히려 여기서는 대탄 시내비골이 더욱 가깝잖은가. 그리고 지척에 황거사도 살고있으니 그의 처를 시켜 따로이 법회를 갖도록하는것이 좋겠네』

『이러면 어떨까요…철신이가 가세가 부요한즉 마음만 내킨다면 틀림없이 그의집안에 신당을 차릴수가 있을겝니다』

정만일이 말하였다.

『그의집에 차려도 괜찮고 아니면 저희집도 좋지요』

『철신을 보고나서 정하도록 하세』

『한번 더 오셔야 되겠읍니다』

『한번만 오겠나, 자주 와야지』

원태와 만일이 주고받는데 시동이가 말하였다.

『자네 내일은 바쁘겠지』

『눈코 뜰새가 없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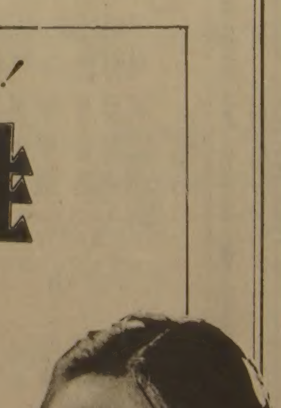
<1699>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신현회
□권순근과 ADD·K악단
월~목 오후2시—새벽1시
금·토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MOZART MUSIC CENTRE
MARKHAM PLACE
Don Mills Rd. & Steeles Ave.
881-8230
HILLCREST MALL
9350 Yonge Street
883-9407
LUCAS YUN 윤 호 섭

●한국의 하나뿐인 여성週刊誌!
●단연 部數도 정상, 내용도 頂上!
주간女性
컬러畵報 立體편집
새 시대를 사는 현대 여성의 다정한 벗!



구독신청·한국일보사
THE KOREA TIME LTD.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ario
M6H 1Z7
구독 신청서
〔지방구독자 3불(우송료 포함)〕
NAME ....
ADDRESS .... APT
CITY .... PROVINCE
POSTAL CODE □□□ □□□ PHONE ....

Grant Brown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 247—7161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 (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男학생 敎大입학 특혜

一定率 한해 女性편중 國校교사 균형위해

문교부는 24일 국민학교교사직에 여성이 대거진출, 남학생들의 교육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사회현상을 바로잡아주기위해 일정비율의 남고생들을 교육대학에 특혜입학시켜 남녀교사의 불균형을 점차 시정키로 했다.

문교부의 이같은 방침은 여교사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질 경우 남학생들에게서 중성화 성향이 나타나리라는 교육심리학적우려가 생기고 학교운영 및 벽지교원의 인사수급에도 어려움이 누적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아래 취해진것인데 「교직의여성화」에 처음으로 제동을 거는 조치로 교육계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문교부는 이밖에도 중등교원에서도 남자의비율을 늘리기위한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대학의 남학생 특혜입학은 우선 지역의 특수성에 맞춰 해당지역의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일정비율을 정하고 그 비율에 따라 남자에게만 입학특전을 주어 별도의 절차를 거쳐 합격시키게 하는 방안이다.

이같은 특혜입학방법은 현행 교육대학신입생 모집규정에 있는 「정원의 5%이내는 교육대학장이 별도 모집할수 있다」는 규정을 원용한것으로 올해 교육대학신입생 모집에서 春川교대가 처음으로 실험적으로 실시해 좋은효과를 거둔것으로 분석됐다.

春川교대는 지난2월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전체모집정원 3백20명의 17%에 해당하는 50명을 남학생으로만별도선발자를통해 입학시켰는데 이들은 교육감의 추천과 간단한 필기시험만으로 선발됐다.

春川교대의 이같은 시도는 강원도내 국민학교교사들중 여성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다 벽지근무가 많아 교대를 졸업하고 신규임용발령을 받은 대부분의 여교사들이 벽지근무라는 이유로 교직을 포기, 교사수급에 상당한 차질을 빚어 이를 막기위해 이뤄졌었다.

국교교직의 여성화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현재 전체교원수 12만4천5백72명중 40%인 4만9천7백20명이 여교사인데 교장·교감을 빼면 경우 일반교사는 절반이 넘는 55.4%이며 남자는 대부분 50대이상의 연령층인데 반해 여자교사들은 연령이 낮아 앞으로 여교사가 절대다수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같은현상은 대도시로 갈수록 더욱심해 서울은 66%, 부산은 60%가 여성이다.

게다가 앞으로 국민학교교사가될 전국 11개교육대학의 재학생 1만1천3명중 85.6%가 여자이며, 신입생 4천5백32명중 남자는 6백95명으로 85%가량이 여자여서 여성화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서울교육대학의 올 신입생 6백40명중 남학생은 단44명으로 7%였다.

이같은 경향은 중등교원에서도 마찬가지여서 금년도사범계신입생중 여자는 75%를 웃돌고있는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의 65대35의 남녀비율이 점차 거꾸로 나타날 전망이다.

【李鍾九기자】

불러도 오지않는 콜택시

連結은 절반뿐…그나마 늑장 「값비싼 일반택시」 둔갑 횡포

콜택시가 또 횡포를 부린다.

관광객이나 급한 용무가있는 시민들을위해 마련됐다지만 필요할때불러도 응답이없고 요즘에는 호텔이나 예식장, 장거리 손님들을 상대로 잡기주차행위까지 마다하지 않고있어 일반시민들로부터 아예 「값비싼 일반택시」「도로의 무법자」란등 민원의 대상이 되고있는것.

지난 4일 서울城北區上月谷洞 고갯길에서 자전거를타고달리던 咸成奎군(13·石串中1년)과 徐在雄군(8·長位국교1년)이 버스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사고 현장을 지켜본시민 徐모씨(37·D교회집사)는 다친어린이를 병원으로 옮기려고 택시를찾았으나 빈차가없자 D콜택시회사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콜택시회사에선「곧 보낸다」는 응답만 해왔을뿐 20여분이 지나도 보내지않아 徐씨는 하는수없이 지나가던 자가용승용차에 애걸, 두어린이를 병원까지 옮겼는데 치료중 모두 숨졌다.

또 임산부등 급한환자를태우기위해 콜택시를 부르면 『대기차가 없다』『좀기다려 달라』는 등 앵무새같은 응답만 반복할뿐 차를 보내오지 않는것이 보통이다. 콜택시중엔 무전시설을 아예떼버린 차도있다.

서울시내 25개 콜택시회사중 14개회사 3백50여대의배차지령실인 서울江東區聖內洞소재 콜택시 무선공동통신실엔 하루 3백50여통의 콜이 들어오지만 연결해주는것은 고작 1백50건 정도. 결국콜택시한대가 하루 콜손님을한번태울까 말까한 실정이다.

三星콜택시 업무과장 池銀求씨(38)는『하루에 8,9건 오는 콜을 위해 대기차를 둘수없다. 게다가 손님이 차를 불러놓고 가보면 허탕치는 일이 많다』며 콜택시의 기능자체를 의심했다.

운전사들은 콜택시 제도를 있으나 마나한 제도라고 거침없이 말한다.

D콜택시 서울1나29×××호 金基萬씨(42)는『승객의 요청이 있어 그방향으로 달리다가도 중도에서 이용승객이 있으면 태우고 본다. 나중에 회사가 추궁해오면 교통혼잡을 이유로 대면 묵인하는 상태』라고 고백했다.

그는 또 최근 일반택시요금인하로 택시승차난이 가중되자 승객들이 콜택시에 몰리고있는것도 콜불응의 한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승객이 요구를해도 와주지않는 콜택시들은 공항·호텔·예식장등 사람이 붐비는곳에 몰려 장거리승객, 합승승객을 찾아 장시간 대기하기 일쑤다. 밤늦게 서울역이나 버스터미널 근처엔 水原까지 2천원에 합승, 30분안에 태워다준다고 유객행위까지 하고있다.

최근 「교통법규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있으나 콜택시의 과속·추월등 횡포는 여전하다.

최근 미국서 귀국, 金浦공항에 내린 黃모씨(50·美코네티컷대학교수)는 서울1자39××호 콜택시를 타고 시내 서린호텔까지 오는도중 너무 과속과 곡예운전을 하는바람에 『눈을 감고 있었다』며 경찰에 운전사를 처벌해달라고 고발했다.

콜택시가 제기능을 잃고 횡포를 부리고있는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업자들이 수입을 올리는데만 급급하기 때문이다.

요즘 콜택시회사는 대부분 1일도급제로 운전사를고용, 하루 5만~5만5천원씩 사납금을 받아들이고 있다.

서울1자50××호 운전사 金英男씨(50)는『1일 5만원을 회사에입금하고 경유값 1만5천원을 빼고나면 한푼이라도 더 집에 갖고가기위해서는 달리는수밖에 더 있느냐』고 반문한다.

콜택시제도는 지난78년10월 환자등 긴급한 용무가있는 사람과 외국관광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위해 만든것인데 서울에만 25개회사에 50대씩 모두 1천2백50대나 인가됐다. 그러나 차례의 유류파동으로 요금이 인상돼 이용률이 떨어지자 80년7월 업자들의 아우성에 못이겨 당국은 절반인 6백25대는 개인택시등으로 전환해주고 나머지 6백25대만 남아있지만 업자들은 지금도 걸핏하면 일반택시로전환해 줄것을 요구하고있다.

【宋大洙기자】

◇계절잃은 봄눈 강원도 산간지방에 때늦은 봄눈이 내려 24일상오현재 대관령에 16·7㎝의 적설량을 보였다。 그러나 고개너머 江陵은 30㎜의 봄비가 촉촉히 내려 봄기운이 물씬 풍겼다。 【江陵=聯合】

일반米12分搗 금지

農水産部 10分搗까지만 깎도록지시

앞으로 시중에서는 12分搗짜리 일반미가 없어지고 대신 품질좋은 신품종이 중점공급된다.

농수산부는 24일 행정고시를 통해 25일부터는 현재 12분도로 깎고 있는 일반미를 정부미와 같은 10분도짜리만 도정토록 전국 2만3백99개 도정공장과 3백43개 양곡상 지구조합에 지시했다.

일반미도정을 10분도로 낮출경우 연간 50만섬의 쌀낭비가 줄어들며 쌀표면에 많은 철분 비타민등 영양가손실을 막게된다.

농수산부는 일반미소매를 억제하고 정부미의 인식을 높이기위해 이날부터 정부미는 작년에 수매한 품질좋은 신품종인 密陽23호, 太白, 曙光, 豊山, 水晶등으로 중점방출키로했다.

농수산부는 이밖에도 농가의 일반미출하를 유도키위해 현재 3단보미만의 영세농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양곡교환제를 전농가로 확대, 양곡교환을 희망하면 현재가마당 4만3천원하는 정부미보통미를 1가구당 4가마한도내에서 빌려주고 올가을 추수기때 수매가를 기준으로 벼로 갚도록했다.

올卒業정원 脫落生 전국 8백76명

지난2월말 졸업정원제로 강제 탈락된 대학생은 모두 8백76명인것으로 밝혀졌다.

24일 문교부가 전국98개대학을 대상으로 집계한 졸업정원제에 따른 강제탈락학생수는 서울대 13명, 延世大14명, 中央大16명, 釜山女大38명, 同德女大37명등 모두 89개대학 8백76명으로 81학년도 입학인원 18만1천5백60명의 0.5%수준에달했다.

또 학사징계에의한 제적및 유급·휴학자등은 1천2백여명에 이르는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학기말에 강제탈락된 학생들은 졸업정원제가 처음으로 실시된 81학년도에 입학, 83학년도에 3학년으로 진급되는 2학년생들인데 대부분의 대학이 2학년재적학생들중 모집인원의 10~20%에 해당되는 탈락률을 적용했다.

문교부는 금년부터 학사징계를 강화하는방법으로 졸업정원제를 운영하게되므로 학사징계에 의한 제적등 감원수는 늘게되나 강제탈락학생수는 줄어들게될것이라고 밝혔다.

汎국민운동 무궁화심기

내무부는 24일 올해를 무궁화심고 가꾸는해로 정하고 대대적인 국민운동으로 추진키로했다.

내무부는 4월20일까지 계속되는 국민식수기간에 각도시의 가로 관광유원지 경기장 국가기념지 공공장소에 무궁화시범동산을 설치, 2백30여만그루를 심고 각직장과 가정에서도 무궁화를 가꾸도록 권장키로했다.

내무부는 이를위해 1가정 1그루심기 1공무원 2그루심기 운동을펴고 반상회와 새마을운동 기구를통해 무궁화의 특성, 심고가꾸는 요령등을 알려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訴願法上 이의신청기간 단축한 지방官廳條例 무효

大法院 판결

소원법(訴願法)상의 이의신청기간인 3개월보다 짧게 10일로 규정한 지방행정기간의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전원합의체(재판장 俞泰興대법원장)는 24일 鄭錦順씨(전남光州市東區壯洞58)가 光州市東區청장을 상대로낸 수요자부담금 부가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鄭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깨고 사건을 光州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원고 鄭씨는 지난79년12월25일 光州市가 東明路확장및 포장공사를 하면서 길옆에있는 鄭씨의땅 35평의 값이 크게올랐다며 4백4만여원의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하자 80년1월11일 이의신청을 냈는데 光州市가 수익자부담금징수에 관한 시조례에 규정된 이의신청기간 10일을 넘겼다며 기각하자 鄭씨는 이에 불복, 소송을 냈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도시계획법상 사업시행청의 처분에대해서 소원법에의해 3개월이내에 이의를 제기할수 있도록 명시되어있으므로 이의신청기간을 시민에게 불리하게 소원법보다 짧게 정한 조례는 모법인 도시계획법에 저촉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원심파기이유를 밝혔다.

소원법은 지금까지 도시계획사업시행청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때 준거법으로 적용돼왔다.

同居여인 殺害청부

30代여인등 둘令狀

【大邱】大邱南部경찰서는24일 동거중인 남자를 살해해줄것을 청부한 김영숙씨(33·여·大邱市南區大明9洞)와 1천만원의 돈을받기로한 스타세탁소 종업원 구정선씨(35)등 2명을 살인미수혐의로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68년부터 한국계 미국인崔모씨(42)와 동거하기 시작, 국민학교에 다니는 남매까지 낳고 살아오던중 최근 헤어질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해주지 않자 청부살인을 계획했다는 것.

김씨는 지난20일 하오2시께 단골세탁소 종업원인 구씨에게 최씨를죽여주면 현금 1천만원과 외제물건을 취급하도록해주겠다며 살해를 청부했다.

구씨는 김씨로부터 이같은 제의를받고 지난22일 하오8시께 야구방망이 마스크등을 준비, 崔씨집 안방다락에 숨어있다가 밤늦게 집에돌아와 잠든 최씨를 위협, 돈을요구하면서 야구방망이로 옆구리를때리고 과도로 무릎을찔러 전치2주의 상처를입히고 강도살인처럼 위장하려 했다는 것이다. 【대구】

日서 호스티스로 일하던 한국女人

4층서投身 2명死傷

조사 피하려다

【東京=宋孝彬특파원】관광비자로 일본에들어와 술집에서 호스티스로 일하던 한국여인이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되자 이를 피하려고 4층에서 뛰어내려 1명이죽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23일밤10시30분께 오오사까(大阪)市南區 시마노우찌(島之内) 빌딩4층에있는 한국클럽무지개에서張京姬양(가명·27·서울銅雀區上道洞17의2)과 柳淑子양(가명·29)이 오오사까 출입국관리국경비원 14명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되자 이를 피하기위해 부엌에있는 회전유리창문을 열고 12m도로에 뛰어내려 張양은 그자리에서 숨지고 柳양은 중태에빠졌다.

이한국클럽에는 11명의 호스티스가 있는데 8명이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다.

張양은 지난2월11일 1년간의 관광비자를 받고 일본에 왔으며 곧바로 한국클럽 무지개에서 일해왔다.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敬老우대 鐵道·지하철에도

순찰警官 금품요구 없애야

民正, 38개民願건의

民正黨은 24일 參與率이 低調한 남성및 공직자들의 班常會참여를 유도하기위해 반상회가 있는날을 각종유흥업소의 休務日로 지정하는것등을 주요내용으로하는 총38개항의 정책民願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民正黨이 지난1년동안 중앙정치연수원에 入所한 전국기간당직자 3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민원및 여론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추출한 이건의안은 敬老우대증소지자에겐 철도나 지하철 요금을 무료또는 반액으로 할인하고 경로우대증대신 주민등록증도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것등을 담고있다.

건의안은 파출소경찰관및 교통경찰관이 관내순찰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 이의 시정을 촉구하고 통일벼는 수확후 2개월간 보관후 出荷해야되는점을 고려, 현재의 출하시기를 1개월정도 단축하여 농민편의를 도모해줄것도 요청하고있다.

이밖에 서민생활과 직결된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營農후계자융자지원=營農후계자에대한 지원을 非農高출신에게도 줄것과 후계자 연령上限線을 40세로 인상.

▲秋穀수매가격발표시기단축=추수기로 앞당겨 營農費마련에 편의를도모하고 쌀의 계통출하를 원활히 해줄것.

▲農村그린벨트규제완화=농촌의 그린벨트, 軍事보호구역에 農畜産用 가건물의신축허용.

▲農業재해보험실시=農業의 재해피해를 보상할 가축보험을 실시, 농민의 재해피해를 보상할것.

▲中·小企業보호=大企業 중소기업의 어음발행일을 단축, 영세업자의 피해를 줄일것.

▲TV드라머 개선=TV드라머의 言語를 순화하고 건전드라머를 방영, 호화사치풍조를 일소할것.

▲燃料채취기간 변경=현행9월에서 농한기를 이용한 11·12·1월로 변경.

▲農藥종류통일및 농약이름 한글표기=유사농약을통·폐합하고 다목적 복합농약을 개발할것. 농약병에의한 공해를 줄이기위해 플래스틱으로 제조하고 농약판매시 공병회수대금을 포함, 사용후 책임수리.

▲농기계부품 규격통일, 수리센터 확충=농기계 제조회사마다 다른部品규격의 통일, 面단위에 1개소씩 수리센터를 설치, 충분한 부품과 전문기술자를 확보해줄것.

▲里長봉급 현실화=里長봉급을 인상, 업무에 적극성을 갖도록하고 里長의 과도한 겸직(민방위대장·단위조합영농회장)을 축소.

「千里眼」 高速道 톨게이트직원 金時榮씨

2평남짓 박스안서 「世上」을 한눈에

날씨가 화창해 집에 따라 주말이면 교외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영업사원 金時榮씨(42·사진)는 서울로 들어오는 화물트럭에 실린 묘목과 서울을 빠져나가는 차량이 많은걸 보고 봄과함께 행락철이 시작됐음을 안다. 그가 일하는 곳은 손바닥만한 박스속이지만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 차의 모습과 화물을 보고 계절과 전국의 날씨를 점친다. 앉아서 전국을 꿰뚫어 보는 천리안을 갖고 있는 것이다.

눈이 붙은 트럭이 들어오면 대관령에 눈이 많이 왔음을 짐작하고 화물트럭의 물동량이 늘어나면 호경기를 가늠하기도 한다.

평일에는 1만3천여대, 어린이날·추석연휴등에는 2만5천여대가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서울의 관문, 그길목에 앉은 金씨는 오고가는 수많은 사람의 표정만으로도 이젠 무엇하는 사람이고 어디를 갔다오는지까지를 읽을수 있다.

그는 69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大田영업소영업원(요금징수원)으로출발, 고속도로와 인연을 맺었다. 그동안 大邱 富平등 전국의 톨게이트를 두루거쳐 4년전 이곳으로 왔다. 40여명의 영업원중 최고참이란 연륜과함께 세태의 변화가 경부고속도로처럼 훤히 머리에 남아있다. 물동량이 늘고 마이카가 늘어나기시작할땐 괜히 신바람이 나기도 했지만 못볼것도 많이봤다.

밤늦게 여자를 태우고 허둥지둥 빠져나가는 세단은 틀림없는 애정행각, 무작피한 눈앞에서 사살되는 쓰라린 현장도 목격했다.

수많은 인간의 이야기를 싣고 오고가는 길목에 앉아있는 그지만 고속도로와 인연을 맺은 14년동안 정작 고향인 충남淸陽으로 가는 버스를 한번도 타본일이 없다. 따뜻한 가족의 정이 그리워지는 명절이면 오히려 혼이 빠지게 바쁘기만하다.

세상을 한눈에보지만 그의몸은 하루종일 2평짜리 알루미늄 박스속을 떠나지못하는 신세다. 미소나 인사는 커녕 돈을 주고 떠날때 퉁어대는 시커먼 매연을 들이마셔야한다. 그렇다고 규칙상 마스크도 못한다. 수표나 고액권을 내미는 사람도 피곤하게 만들지만, 그는 봄바람에 들뜬나머지 고속도로에서 불행한사고가 일어나지않기만 바랄뿐이다. 金씨의 표정을 밝게하려면 사회가 밝아져야한다. 【韓基奉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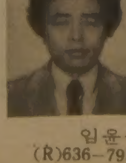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HWANG
Tom Hwang Real Estate Limite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ARIO M3B 1Z3
TELEPHONE 449-86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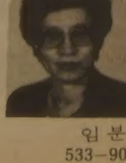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4,500 $12,000 $14,000(황용현)
Discount스토아(주6일) $7,000(임윤식)
Tuck Shop 주매상 $3,000 $5,000(임윤식)
Nut Shop 시간짧고 바쁜 쇼핑센타내 아스킹 $30,000(황용현)
●과일가게 년매상 $500,000이상, 프라쟈내(임윤식)
●Fish & Chip 주매상 $8,000 쇼핑센타내 아스킹 $279,000(황용현)
●건물달린 가게
1)3 Bedroom 코너집, 빈가게자리, 가게꾸밀 분에 적합, $25,000 다운페이, 가격 $165,000(황용현)
2)주매상 $7,000 2-Bedroom아파트, 80,000다운페이 합계(가게+건물) $25 0,000(유웅복)
3)주매상 $7,000 코너건물(서쪽지역) 가게와 건물 $330,000(황용현)
●꽃집: 다운타운 TTC주차장옆 27년된 꽃집, 짧은 시간(일요일 닫음) 아스킹 $45,000(황용현)
●투자용건물 1)한인상가에 있는 상용건물 $50,000 다운페이 $159,000 (황용현)
2)영 Street선상 투자용건물, 건물 3동 ($200,000다운) 아스킹 1백만불 (황; 용현)
3)버라이어티·건물달린 아파트, 다운페이 $30,000 아스킹 $95,000(유웅복)
●플라쟈 1)32 Unit apt, 11% 모게지 가격 $690,000(이헌영)
2)4개의 Store $120,000(12% 모게지) 가격 $525,000(이헌영)
3)16개 가게 년수입 $240,000 다운페이 $750,000 12% 모게지 $2,350,000(황용현)
4)15개 가게 년수입 $120,000(11¼% 모게지) 가격 $1,350,000(유웅복)
●주택 1)돈밀×로렌스, 방갈로 3베드룸, 쇼핑센타근처, TTC 10¾% $129,000(유웅복)
2)다운타운 타운하우스 3베드룸 13% interest 가격 $75,900(유웅복)
3)윌슨×쉐파드, Split House 3베드룸 지하실 잘 꾸며진 교통편리 $145,000(임윤식)
●드라이크리닝: 연매상 7만불 스카브로 로케이숀, 훼밀리 비즈네스, 아스킹 $48,000(황용현)
●버라이어티: 주매상 $7,500 최상의 장소, 아스킹 $125,000(이헌영)

황용현 (R)286-1548

이헌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임윤식 (R)636-7950


임분옥 533-9061

유웅복 (R)44 7-9395

◇"방황하는 볼" 中央大가 15년만에 高麗大에 첫승리를 거두었다. 高大의 李信煐 (⑭·22번) 과 中大의 장신 金裕宅 (14번) 이 볼쟁탈전을 벌이고있다。

中大、15년만에 高大잡았다

64·59 위력의長身…최대파란創出

大學농구

中央大가 68년 팀을부활한 이래 高麗大와의 대전서 15년만에 처음이겨 이번대회 최대파란을 일으켰다.

中央大는 24일 장충체육관서열린 제20회 춘계대학농구연맹전 6일째 결승리그 첫날경기에서 韓基範(2m7)과 金裕宅(1m97)등 두장신선수의 활약과 姜正秀의 외곽슛에 힘입어 1년생李信煐이 분전한 高麗大를 64-59로 격파, 2승을 올렸으며 高麗大는 2패로 우승전선서 탈락했다.

延世大는 俞載學 高明和 吳世雄트리오의 고른 득점으로 國民大를 104-84로제압, 2승으로 中央大와 함께 나란히 선두를 달리고있다.

漢陽大는 慶熙大를 80-78로 물리쳐 2승으로 선두그룹을 형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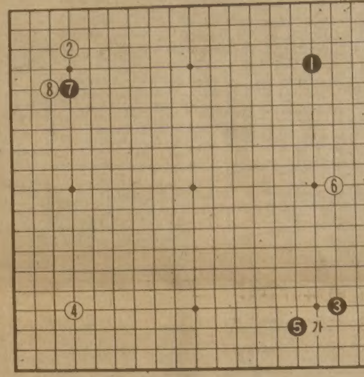
高大는 슈팅력·체력·개인기등에서 앞섰지만 中央大의 장신앞에서는 어쩔수없었다.

高大는 崔喆權이 외곽슛을 터뜨리고 李信煐이 中大의 韓基範 金裕宅틈바구니를 뚫고 골밑슛을 적중, 金鎬이 게임을 잘풀어나가 전반서 36-28로 앞섰다.

그러나 韓基範과 金裕宅을 마크하던 高大 수비선수들의 반칙이 늘어나면서 장신의위력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高大는 후반3분께 42-30으로 12점차까지 벌렸으나 中大장신을 견제하던 李信煐이 4반칙을 범하면서 中大의 맹추격을 받았다.

中大는 高大의 수비가 느슨해진 틈을타 金裕宅과 韓基範이 골밑에서 장신의 진가를발휘, 9분께 朴泰源의 슛으로 44-44타이를 만들었다. 이후 中大는 金裕宅과 姜正秀의 분투로 리드를잡아 64-59로 역전승했다.

第14기 名人战 挑战者决定리그



第13局 第1譜 1~8 (각5시간·덤5집반)

白 (7段) 徐奉洙 〈2勝1敗〉

黑 (4段) 姜 勳 〈2勝1敗〉

월간 「바둑」誌는 「棋道文化賞」은 금년부터 「바둑文化賞」으로 고치고 그 제6회 수상자를 다음같이 선발했다.

최우수기사 曺薰鉉9단, 최다승리 徐奉洙7단 (52승30패), 승률제1위 曺薰鉉9단 (40승9패, 81.6%), 최다연승 徐能旭6단 (12연승), 수훈 張秀英6단, 감투 金寅8단, 신예기사 許壯會4단.

이중曺9단은 제1회부터 계속 최우수기사자리를 지켜왔고 徐7단은 최다승리와 승률1위를 번갈아 차지했다. 그러고보니 曺9단의 맞수는 아직까지 徐7단밖에 없는 형편인데 문제는 徐能旭, 張秀英, 姜勳, 許壯會등과 더불어, 혹은 그들에 앞서 다시금 정상에 올라설 날은 언제인가. 한번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같다.

변천하는 포석감각

요즘 曺9단은 王位戰에서 도전자 張秀英을 4대0 일방적스코어로 격퇴했고, 覇王戰에서 연속2승으로 막판에 몰아놓은 도전자 徐7단과 이달 25일 제3국을 두게되어있으며 國棋戰역시 가까운 시일안에 徐7단과 도전제1국을 둘 예정이다.

이리하여 올해는 徐7단을 필두로 한 연합군의 「타도曺帝國」 대공세는 더한층 치열해질것으로 예상된다.

黑3은 중국식포석을 펴든 안펴든 흔히 「가」의곳에 두고있었는데 요즘은 다시 옛날포석으로 환원되는 모양이다. 白4 다음 黑5, 白6은 피차 예정된 코스.

黑7에 대한 白8은 평범하게 실리를 취한수. 黑은 어떻게 응할는지. 【一九】

4·0 延大、大宇 유린

"國家대표 6명이면 최고냐"

「그물守備」편후 후반集中砲

高大도 朝鮮大 완파 李相龍(韓一은행) 8째골

대통령盃 전국축구

거함이 침몰했다. 24일 창동第一銀行구장서 열린 제31회대통령배쟁탈 전국축구대회결승토너먼트 1회전서 延世大는 실업축구 최고의 호화진용이며 우승후보로 꼽히던 大宇를 4-0으로 완파, 8강이 겨루는 준준결승전에 올랐다. 延世大는 철통수비로 大宇의 스타들을 묶고 후반들어 金俊鉉이 2골, 崔溶吉과 尹星孝가 각각 한골씩 터뜨려 대회개막이래 최대의 파란을 일으켰다. 국가대표 6명 (趙廣來 李泰昊 姜信寓 張外龍 鄭聖敎 丁海遠)을 보유한 大宇는 국가대표1명 (邊炳柱)과 대학선발1명 (朴福濬)을 갖고있는 延世大의 공격력을 과소평가했다가 참패했다.

韓一銀行은 嶺南大를 1-0으로 따돌리고 高麗大와 4강진출을 다투게됐다. 韓一銀의 李相龍은 후반6분 헤딩슛을 성공시켜 결승골을 기록, 4게임 연속8득점을 올리면서 개인 득점레이스 1위를 지키고있다.

한편 高麗大는 朝鮮大에 3-0으로 완승, 16강전을 거치지않고 延世大와 나란히 8강에 올랐다. 高麗大에서는 1년생 金鍾夫와 申連浩, 대학선발 曺敏國이 한골씩 터뜨렸다. 이로써 延·高大는 결승전에서 다시한번 맞붙을기회를 갖게되었다. 高大는 이대회 개막경기서 延大를 1-0으로 물리쳤었다. 이날 서울근교에 자리잡은 第一銀行구장에는 5천여팬들이 몰려들었다.

延大가 대승한것은 「그물수비」의 힘이었다. 경기에 앞서 金貫權코치는 『3명만 철저히 막으라』고 선수들에게 지시했다. 大宇의 丁海遠이 鄭原作에게, 李泰昊가 尹星孝에게, 趙廣來가 鄭雄日에게 밀착마크당했다.

大宇는 초반부터 공격에치중, 골이 터지지않자 리듬을 잃었다.

延大는 후반8분께 崔溶吉이 邊炳柱의 도움을 받아 선제골을 올리고 37분 다시 邊의 어시스트로 金俊鉉이 두번째골을넣어 안정권에 들어섰다. 大宇는 발이빠른 邊炳柱를 떼어놓는바람에 邊이마음놓고 大宇문전을 위협할수 있었다.

40분에는 金俊鉉이 大宇G K丁聖敎의 키를넘겨 세번째골을 성공시켰고 경기종료1분을 남겨놓고 金俊鉉의 어시스트로 尹星孝가 마지막골을 터뜨렸다. 大宇와 延大는 슈팅수에서 똑같이 7개였으나 延大는 후반4개의 슛을 모두 성공시켰다.

高麗大는 전반31분 金鍾夫가 朴良夏의 센터링을 받아 선제골을 올리고 후반5분에 曺敏國이, 22분께에는 申連浩가 각각 골을추가, 완승했다.

◇제11일전적

▲결선1회전

연세대학 4 (0-0, 4-0) 0 대우

고려대학 3 (1-0, 2-0) 0 조선대학

한일은행 1 (0-0, 1-0) 0 영남대학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2년간 나이트클럽서 千5백만弗벌어

체임벌린 記者회견

◇인간장대 체임벌린, 2년간 나이트클럽경영으로 1천5백만달러를 벌었다고 큰소리쳤다。

24일 상오 한국에온 美프로농구의 신화적인물 윌트 체임벌린(46·2m15)은 이날 상오10시 교보빌딩12층 國際商事 쇼룸서 열린 기자회견서 『나는 사업차 방한 했을뿐이며, 美8군 혼성팀의 일원으로 25일 三星電子팀과 시범경기를 가질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코치강습회가 마련되면 고려해보겠다는 의견을피력했다.

"스포츠용품 사업하러 왔다" 코치강습 기회생기면 고려"

체임벌린을 초청한 國際商事측은 체임벌린 본인은물론 국내 농구관계자들과의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시범경기일정을잡아 발표, 혼선을빚었다.

다음은 체임벌린과의 1문1답 내용이다.

―이번 訪韓목적은.

▲한국의 스포츠용품이 우수하다는 얘기를듣고 사업차 왔다.

―현재 하고있는 일은…。

▲육상, 배구, 농구의 스폰서를 하고있다. 특히 육상선수를 40명 지원하고있는데 그중 3분의2는 84년 올림픽 대표선수로 참가할것으로 보인다.

―방한중 한국팀과 시범경기를 가질 계획인가.

▲아니다. 나는 농구를 하러온것이 아니고 사업때문에 왔다. 코치강습은 기회가 있으면 해보겠다.

―한국농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자농구가 세계수준이라는것은 알고있다. 농구에서는 신체조건이 중요한데 한국선수들은 키가작아 불리하다. 하지만 좋은 코치의지도를 받으면 빨리숙달될수있을것이다.

―일부에서 농구선수의 키를 제한하자는 주장이있다.

▲장신이 유리하지만 득점력있는 장신선수는 나와 카림·압둘·자바정도이다. 실제로 경기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보통의 선수들이다.

―14년간의 프로선수생활중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많이 벌었다. 동료 프로선수들의 봉급수준을 올리는데 공헌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지금운영하고있는 뉴욕의 나이트클럽에서 2년동안 번것에도못미친다(액수는?) ―1천5백만달러를벌었다.

―얼마전 여성스포츠잡지 표지모델로 등장했는데.

▲돈을 한푼도 안받았다. 여성스포츠를 지원하기 위해 모델로 나섰을 뿐이다.

―알리, 펠레등 세계적 슈퍼스타들은 여러번씩 결혼하는데 아직 미혼인 이유는.

▲그들보다 머리가 좋기때문이다. 결혼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행복한것은 아니다. 지금 돈많은 미인을찾고 있는데 나타나지않고 있다. 【金興根기자】

松谷女高 사이클팀 전국2번째로 創團

松谷女高(서울동대문구망우동)가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전국 두번째로 여고사이클팀을 창단했다.

이로써 국내여고 사이클팀은 강원도襄陽女高와함께 두팀으로 늘어났다.

◇松谷女高사이클팀 ▲감독=전원찬 ▲코치=박희득 ▲선수=이미경·박은숙·유주언·박순녀·조경숙·정명화·이은옥·구기자·김연희·손미경·김인경·김해순

땅끝에서 오다

金成一 作 宋龍 畵 〈16〉

한권의 책 ⑦

한쪽 구석의 검사대에서 예의 반코트 사나이가 세관원과 시비를 벌이고 있었다. 그는 목쉰 소리로 세관원에게 떠들고 있었다.

『여보시오, 나는 지금 내 집을 찾으러 들어가는 길이란 말이요』

『집이 왜 그 안에 있단는 말입니까?』

『깜빡 잊고 가방 한개를 안가지고 나왔소』

『그래요? 그러면 여권 좀 보여주십쇼』

『여권? 여권 여기 있소』

사내는 반코트 안주머니에서 여권을 꺼내 보였다.

『짐표는 가지고 계십니까?』

『짐표는 조금 전에 내버렸는데…』

『아니, 이 여권에는 오늘 입국한 스탬프가 안찍혀 있지 않습니까?』

세관원은 날카로운 눈초리로 사내를 쏘아보고 있었다.

『이 양반이 똑똑이 보지 않고 왜 없다고 그래? 이리 주시오, 내가 보여 줄테니……』

사내는 세관원으로부터 여권을 빼앗아들더니 쏜살같이 출구 쪽으로 달아나는 것이었다. 당황한 세관원이 『앗! 저, 저 사람이!』하고 외치는 사이에 이미 그 사내는 사람들 틈으로 모습을 감춰버렸다. 실로 번개같은 동작이었다.

준호는 검사대에 서 있는 세관원들을 주욱 훑어보다가 아는 얼굴을 쉬사리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늘 공항 세관원들과 교제가 있었던 것이다.

동경은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관문같은 곳이어서 수많은 직원들이 나리따 공항을 드나들고 있었다. 게다가 일본에는 리진물산과 기술제휴를 하고있는 회사도 꽤 여럿이어서 기술연수생들도 적잖게 드나들었고, 이따금씩 그들은 회사의 샘플이며 사장이나 회장 사이에 오가는 값비싼 선물들을 휴대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으레 준비해야 하는것이 세관의 무사통관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리진물산 동경지사의 임준호 대리는 나리따 공항 세관원들과는 어쩔 수 없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침 오늘 그의 눈에 띈 것은 그 중에서도 제일 사람이 좋은 후쿠시마·히데오(福島秀雄)였다.

그는 검사대 앞으로 다가가서 낮은 소리로 그에게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후쿠시마상』

『아니, 하야시(林)상이 여긴 웬일입니까?』

『좀 급한 볼일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려고 왔어요』

『또 뭐가 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파리에서 우리회사의 부장하나가 JL404의 탑승수속을 해놓고 비행기를 못탔어요. 그 부장의 짐을 찾아야겠는데…』

『왜 못탔을까요?』

『좀 멍청이 부장이거든요』

김준호는 한 눈을 찡긋해 보였다. 은근히 속으로 이 세원에 대한 그런 표현이 기분 좋았다.

『그런데 나보고 꼭 그 짐을 찾아놓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모가지를 자르겠단는 군요. 멍청이라도 부장은 부장노릇을 하려 든다니까요, 글쎄』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광고문의 533-2361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집수리·신건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전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빙,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블랑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 웨이트레스 구함.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레스토랑(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 757-6334 Mr. 최기주

Valley Village (금천루)
사천요리 전문, 단체손님 환영(280석)
전화 491-4058 신영식, 하주용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za) 일식전문, 한식
전화 :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피자(RESTAURANT & TAVERN)
▲피자 $50~$100주문-10% 할인/$100이상-15% 할인.
5310 Yonge St. 전화 : 226-1146 Mr. 정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일요일 정상 영업(오전 11시~오후 8시까지)함.
★교회, 동창회, 결혼, 회갑, 피로연등 단체구입손님에게 특별할인봉사.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김승수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 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우문원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안 경 점

불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0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 431-2596

A-1 Safety Driving School
자상하게 성의껏 잘지도함. 어디든 가서 Pick-Up함.
1레슨: $11. Road 테스트: $22. 전화 : 763-3593, 766-0860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찬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장 의 사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 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20%~30% OFF
(B)252-4857, (R)252-6602 Mr. 유(분납 가능)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Stewarts 카페엣 Land(70%까지 세일중)
무료설치. 스폰지 무료. 무료배달.
1200 Kennedy Rd. Scarboro(Tel. 757-2811)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 철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이영철 회계사 (IN KYU KIM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이명윤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RUOFF
다이야몬드·각종보석
Wholesale 가격 !
◉각종 보석 디자인
◉Custom 디자인
◉보석 수리전문
50% OFF
345 Bloor St. E. Toronto
(Ent. 79 Huntley) 전화 : 922-8350

구 인

출퇴근하시면서 2개월된 아기 봐주실분 구함.
Weston Rd×Lawrence Ave. W. 지역
전화 : 245-8765 Mrs. 정

30대 애기없는 서양부부가 한국 애기를 입양하고 싶어함.
애기가 어릴수록 좋고 애기를 사랑함.
전화 : 533-0374 Jeri Vrieze

그로서리 가게 메니저 구함.
스탁은 보증금 원함. 주매상 : $6,000. 부부운영 원함.
전화 : 439-9531 (오전9시~12시에만 본인 있음)

경험 있는 여자 풀타임 캐쉬어 구함
다운타운지역 925-0339

재봉사 구함.
재봉사 풀타임(경험) Piece work $4.50~$5.00
전화 : 368-2819

도너스 가게에서 일하실분 구함.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전화 : 861-1521(B), 222-3877(R)

입주하셔서 가사와 아기 돌볼 가정부 구함.
457-9570

파트타임 스토아 헬퍼 구함.
전화 : 488-1634

풀타임 웨이트레스와 주방헬퍼 급구
전화 : 536-0290

Store helper full-time(입주)과, part-time 독신남자.
살림돌보며 가게일 봐주실 50대(입주) 아주머니
연락주세 요.
가게 전화 : 690-6572
주소 : 2038 Queen St. E. Toronto, M4L 1J4

화장품 쎄일즈 하실분 구함.
연간 4억달러 이상의 화장용류 수출실적을
갖고 있는 일본공사(Japanese Corporation)는
캐나다 시장 확장의 일환으로 1층 점포를
마련하고 쎄일즈하실 분을 구합니다.
화장품 계통으로 흥미나 장래를 꾸미고
싶으신 분 연락하세요. 좋은 대우.
★인터뷰 희망자는 전화 : 364-8932 Carol
NOEVIR EMPLOYMENT SERVICE

캐네디안 식당에 주방헬퍼 구함.
전화 : 621-3731 (Mr. 김) Etobicoke지역

일본음식점 웨이트레스 급구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221 Ellesmere Rd.(Warden 서쪽)
전화 : 441-2211 Hamamoto Japanese Restaurant

경험있는 커피숍 카운터 헬퍼구함.
전화 : 438-0403 Mrs. 숙

일본음식점 풀타임 웨이트레스 구함.
4 Avenue Rd. (Park Plaza Hotel)
전화: 960-9035. Katsura Japanese Restaurant

스토아 여자 헬퍼구함
18세-24세 사이. 무경험자 무방. 다운타운 지역
전화 : 463-1664

개 인 지 도

피아노 레슨
Royal Conservatory 시험준비. All Level.
전화 : 669-5517 Mrs. 리 (Steeles & Bathurst))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Ceramic)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현대자동차	477-0202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5-2091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77-1888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44-3716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영남향우회	249-6830
숭공문화협회	444-3658
온타리오한인맹인후원회	593-8943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1 Vaughan Rd. (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 (김 만 구)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매 매

비데오 아케이트 매매
수십가지의 중고 Pineball과 비데오 머신
전화 : 447-6955 Mr. Lee

가정사정상 그로서리 가게를 팔고자함
주매상 $4,000 956 Brimorton Dr. Scarboro.

다운타운에 있는 레스토랑 매매(Bar도 겸해있음)
2,000 Sq.ft. Church St.(King & Queen)
전화 : 368-1086 (월-금: 11:00am~10:00pm) Mr. Cameron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아침 9시-밤 10시.
전화 : 222-3109

Chicken & Pizza 레스토랑 매매.
주매상 $2,000. 좋은조건에 양도함.
아스킹 $20,000+장비 몰게지. George Town.
전화 : 1-873-1603 Mr. 최

아파트먼트 달린 버라이어티 스토아 빌딩전체 매매
주매상 : $4,000+비데오(월 $500). Open 6개월
경쟁 없음. 전화 : 763-6723

잘 손질된 야마하피아노 팝니다.
전화 : 652-0370 774 St.Clair Ave. W.

▲Bloor St. 인베스먼트 $179,900
▲Yonge st. 에 위치한 Fruit 스토아
주매상 $5,000. 렌트 $1,400. 가격 $60,000
▲Yonge St. 인베스트 빌딩. $269,900
전화 : 535-1170 박문희(Clara Park)
Royal Trust 4430 Bathurst St.

좋은 투자의 기회! 13개 배출러. 리노베이트된 벽돌건물
Semi. 다운타운 U of T. 아파트 있는 빌딩. 가구있게 지어졌음
파킹 2개씩 있음. W. H. Bosley Co. —Percy 전화: 486-5777

79년 밤색 VOLVO 스테이션·웨곤 245DL.
AM·FM 카세트. 컨디션 좋음. 가격: $4,900
전화 : 767-5080 Mr. 리

밀크 &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좋은 위치. Yonge & Steeles
전화 : 222-3299 Frank

가게나 빌딩을 파실려구요?
저희 매매난을 이용해 보세요.
만족한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광고국 : 533-2361

World Book—Childcraft of Canada
A division of SFZ International. Ltd

자녀들의 필수교과서
"WORLD BOOK' 백과사전
총 22권 • Special 가격으로 판매.
문의처 : 533-2364 김
767-1702 (오후 6시이후)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3 Pcs. Wall Unit. $199
2)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거울달린 화장대 $79
4)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5 pcs. Kitchen set(식탁 + 4개의 의자) $89
6)쇼파 4pcs. set $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전화 : 364-0984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출장지도및 주말지도도 함.)
◉개인·소구룹·단체. 문의: 742-4208 김유수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홀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11시이후)
전화 : 271-0741 Mr. 명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아파트 세놓읍니다. 교통이 편리한 다운타운 2베드룸과 1베드룸.
전화 : 365-1489(낮) 493-9599(저녁5시 이후)

컴퓨터 식자 서비스 : 533-2361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제인·팍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875 Jane St. Toronto. M6N 4C4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Bloor & Kennedy 꽃집
결혼, 개업용 화환및 Plant
2194 Bloor St. W. 전화 : 766-0175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정순꽃집(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충원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438-0628(R) Mrs. Oh

스타미용실(Mrs.김)◉남·녀커트 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전화 : 741-4410. 화~토: 9am~8pm. ◉매주 월요일만 동부영업
•1353 Danforth Rd. 전화 : 261-1533. 월 : 10am~7pm.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초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베이콘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베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Pro Insurance Prokerages Inc.
P.O. 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얄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 유웅복 (R)447-9395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SKYLINE REAL ESTATE LTD.
김종조 651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5-0028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 (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생 선

Big Fish Market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회감.
6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항섭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훠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illegible] 있음.
○아늑하고 조용 —— [illegible] 있음.
693 BLOOR ST. W.
535·9541 MR. 김